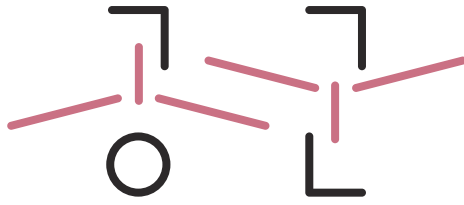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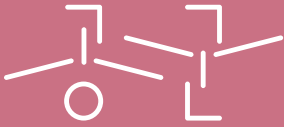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높은 힘



2019
04
490

<http://afzine.co.kr>





COVER STO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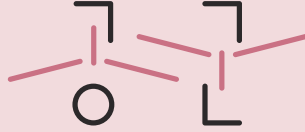
휴대폰 사용과 평일 외출, 그리고 공군의 병영 문화

4월부터 공군의 모든 병사들은 일과 후에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 2월부터는 매일 최대 2회씩 평일 외출도 가능해졌습니다. 휴대폰으로 다양한 것을 할 수 있는 시대, 병영 속에 들어오는 휴대폰은 병사들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병사들의 평일 외출은 어떤 풍경일까요? 이번 호에서는 휴대폰 사용과 평일 외출 시행을 맞이하여 공군인들이 새롭게 만들어어나가는 병영문화를 살펴봤습니다.





병사들은 일과 후에 다양한 방법으로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다. 병영 내 휴대폰 사용은 사회와의 소통은 물론, 인터넷 강의나 전화 영어 등을 이용한 자기계발에도 유용하다. (관련 기사 : 6쪽~19쪽)



05	화풍지설	개와 사자
06	기획특집	병사 휴대폰 사용 & 평일 외출
20	르포르타주	제11전투비행단 급양중대
24	내 옆의 공군인	제162전투비행대대 엄지호 대위
28	그날, 우리 하늘	지상(紙上), 지상(地上)에 펼쳐진 하늘
30	행사 안내	부대 개방 & 블랙이글스 에어쇼 행사 일정
34	지금 이 순간!	3월의 참모총장동정 & 공군 소식

38	담벼락	외출
40	책 읽는 공군	『영국 전투』 & 『프랑켄슈타인』

42	지피지ծ 공군인물	대한민국 공군의 어머니, 권기옥 여사!
46	우주의 이해	인류가 쓰아올린 별, 인공위성
48	생활 타이포그래피	시각적 무게감
50	공군인의 마음 건강	불안장애
52	첫 독자의 편집후기	『떨지 않고 할 말 다하는 법』
54	철학, 군인정신을 말하다	미야모토 무사시가 말하는 무예의 길, 『오류서』
56	생각하는 그림	137점 만점에 96점
58	기준의 기준	'사이버'를 잇고 사는 사람들, 그리고 군인



표 지(앞) 벚꽃이 흩날리는 봄날의 KT-1
그 래 픽 병장 홍인선(미디어콘텐츠과)
표 지(뒤) 자토 일러스트

발 행 일 자 2019년 4월 1일(통권 제490호)
발 행 인 공군참모총장 대장 이왕근
편 집 인 공군본부 정훈공보실장 대령 강성구
편 집 감 수 중령 정기완
기 획 · 편 집 대위 이요셉, 중위 이준건
디자인·인쇄 국군인쇄창(F19030111) (910-4504, 042-553-4504)

※ 본지에 게재된 개인 원고는 공군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개와 사자

중국 송나라 때 승려 도원(道原)이 지었다고 알려진 전 등록(傳燈錄)은 역대 선승들의 계보와 법어가 잘 정리되어 있어 불가에서는 매우 높이 평가 받고 있는 책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한로축괴 사자교인(韓獺逐塊 獅子咬人)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흙덩이를 멀리 던져주면 한(韓)나라의 개는 그 흙덩이가 고깃덩이인 줄 알고 그것을 쫓아가지만, 백수의 제왕 사자는 흙을 쫓지 않고 되돌아서서 그 흙을 던진 사람을 덮쳐 문다.’는 말씀입니다. 이 구절은 불가나 도가에서 깨달음을 얻으려는 사람들에게 주로 회자됩니다만 우리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보여집니다.

던져지는 흙덩이를 쫓아 천방지축으로 뛰어다니는 개가 되어 정신없이 살 것인가 아니면 그 흙이 던져지는 근본 자리를 단박에 제압하고 포효하는 사자가 될 것인가를 묻고 있지요. 여기서 개와 사자는 심볼리즘으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개는 표피적으로 보여지는 것에만 집중하는 형이하학적 영역을 상징하고 사자는 오감을 넘어선 보이지 않는 본질을 추구하는 형이상학적 영역을 상징한다고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문제는 던져지는 흙덩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개인의 영역에서도 조직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에 직면할 때 우리는 개가 될 수도 있고 사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흙덩이가 떨어진 곳이 아니라 던져진 방향으로 시선을 돌리는 마음의 힘을 반드시 키워야 하겠습니다.

‘한로축괴 사자교인’이라는 경구를 접한 이후 저는 종종 우리 공군은 늘 사자의 길을 택하고 있는지 자문해 보게 되었습니다. 지난 군 생활을 회고해 보았을 때 우리 공군도 많은 흙덩이들로 유혹을 받았다고 보여 집니다. 보편적으로 흙덩이들은 시대상황 혹은 시대정신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던져질 때가 많습니다. 개혁, 혁신, 4차산업혁명 등도 이름만 달리고 있지 모두 한 자리에

뿌리를 둔 같은 문제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 문제가 나타난 근본자리이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의 원천에 다가갈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나타나는 ‘변화와 개혁’의 요구는 어느 한쪽에서가 아니라 군의 안과 밖 모두의 요구라고 보여집니다.

레스토랑에서도 음식을 완전히 새로운 메뉴로 바꾸려면 우선 조리기구와 담아낼 그릇을 바꿔야 합니다. 구상한 음식이 가장 효율적이고 편리하게 조리되어야 하고 그 음식이 플레이팅 되는 그릇도 먹는 사람의 편의를 최대한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공군은 새로운 음식을 만들 것을 소비자들로부터 요구 받고 있는 식당 경영자와 비슷한 처지에 있다고 보입니다. 북한은 물론 주변국과의 상황도 그렇고 4차산업혁명이 그리는 그림도 우리 일상 전 분야의 운영 메카니즘이 과거와는 판이하게 바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래 우리 공군이 맞이할 다양한 콘텐츠들(무인기 시대, 모병제, 전방위적 위협, 우주 및 정보자산의 허브 등)을 담아낼 새로운 ‘그릇’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편제, 직능, 인사시스템, 병과구조, 상부 엘리트 충원구조 등 지금의 우리 그릇으로 과연 변화될 미래를 성공적으로 담아낼 수 있을지 묻게 됩니다. 그릇 자체를 바꾸려는 구상과 노력이 있지 않으면 ‘라면그릇에 스테이크를 우겨넣은’ 년센스 조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구석구석에 숨은 인재들이 큰 운동장으로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가뜰이나 모집단이 작은 공군은 소구성원이 폭넓게 경쟁하면서 경영의 엘리트들이 드러나 병과나 기종에 무관하게 CEO자리까지 갈 수 있게 제도를 만드는 것이 ‘사람을 무는 사자(獅子咬人)’의 길일 것 같습니다. 결국 사람이 문제이고 사람이 해답입니다. AF

정훈공보실장 대령

강성규



병영에 불어오는 소통과 자유의 바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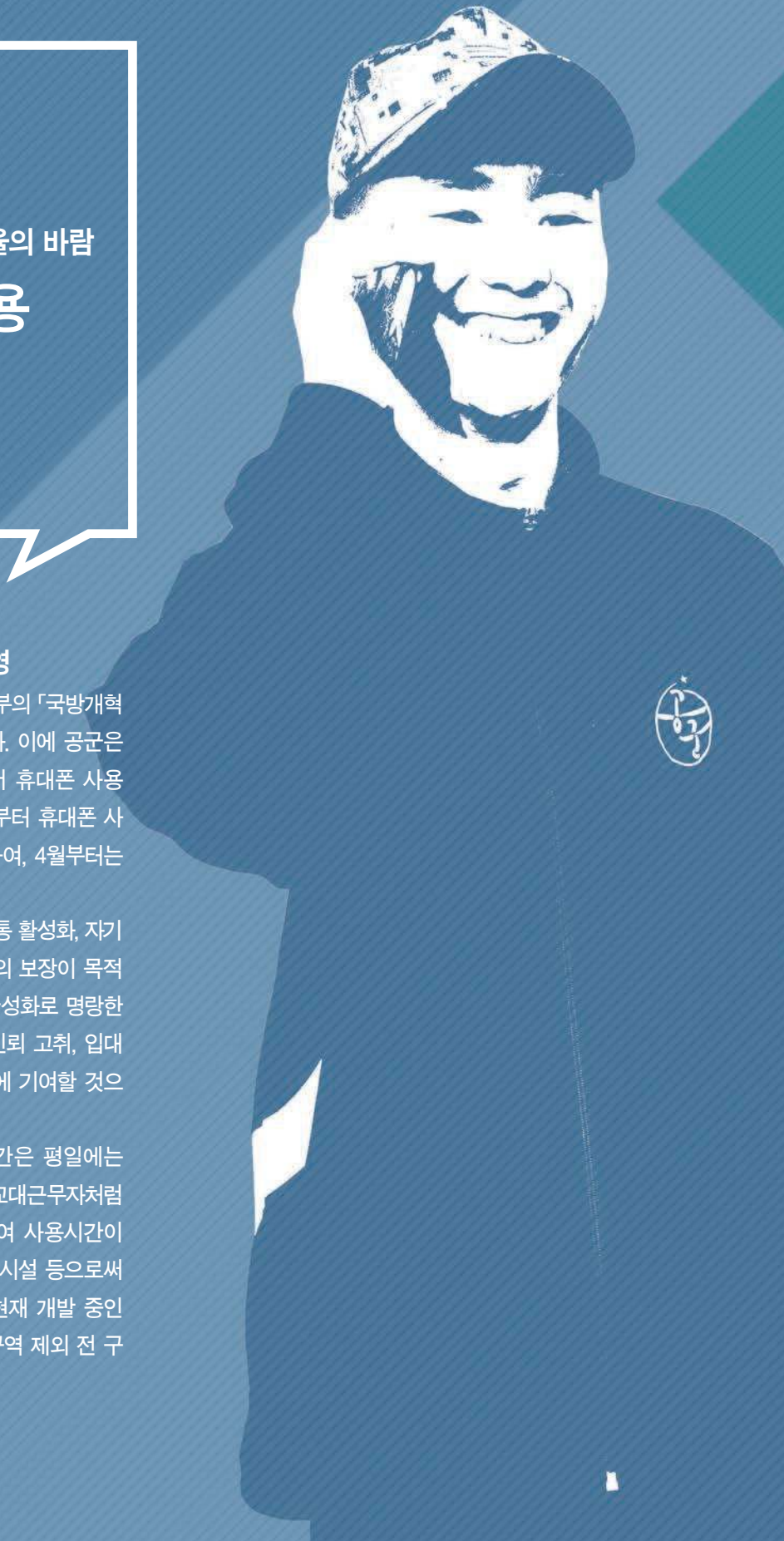
병사 휴대폰 사용 & 평일 외출

병사 일과 후 휴대폰 사용 시범운영

작년 3월, 병사들의 '휴대폰 사용'이 국방부의 「국방개혁 2.0」 병영문화분야 추진과제로 선정되었다. 이에 공군은 8월부터 제3훈련비행단 등 5개 부대에서 휴대폰 사용 시범운영을 시작했다. 그리고 올해는 1월부터 휴대폰 사용 시범운영 부대의 비율을 월별로 확대하여, 4월부터는 전(全) 부대가 시범운영 대상이 된다.

병사들의 휴대폰 사용은 가정·사회와의 소통 활성화, 자기 개발 기회 확대, 건전한 여가선용 여건 등의 보장이 목적이다. 공군은 이 제도가 병사들의 소통 활성화로 명량한 병영문화 조성과 공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고취, 입대자들의 병영생활에 대한 불안감 해소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병사들이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평일에는 일과 이후, 휴일에는 점호 이후이다. 단, 교대근무자처럼 임무와 여건이 특수할 경우 이를 고려하여 사용시간이 조정될 수 있다. 사용 장소는 생활관, 복지시설 등으로써 부대별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현재 개발 중인 통제 시스템을 적용한 후에는 보안 취약구역 제외 전 구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병사 평일 일과 후 외출 전면 시행

마찬가지로 병사들의 평일 일과 후 외출은 작년 3월, 국방부의 「국방개혁2.0」 병영문화분야 추진과제로 선정되었다. 8월부터는 제1전투비행단 등 4개 부대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실시했으며, 올해 2월부터는 전 부대를 대상으로 전면 시행하였다.

평일 외출은 군사대비태세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단결활동, 진료, 면회, 자기개발 및 개인용무 처리 여건 보장을 위한 것이다. 병사들은 월 최대 2회까지 평일 일과 후 외출을 실시할 수 있으며, 복귀시간 등은 부대 운영, 지역 여건, 임무 특성 등을 고려하여 부대별로 조정이 가능하다. 병사들의 외출은 기본적으로 그 범위를 ‘군사대비태세에 지장이 없는’ 수준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허가인원과 구역에는 제한을 두고 있다. 음주 또한 불가능하다.

혁신적인 정책, 정착까지 많은 노력 경주

병사들의 병영 내 휴대폰 사용과 평일 외출은 매우 혁신적인 정책으로 평가 받고 있다. 공군은 이를 잘 정착시켜 ‘자율과 책임의 병영문화’를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쏟고 있다. 휴대폰 사용의 경우 보안 위반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시범운영을 통해 얻는 정보들을 분석하여 다양한 보완 조치를 실행할 계획이다. 또한 평일 외출의 경우 부대의 대비태세가 소홀해지는 일 없도록 하면서, 전 장병의 의식전환을 통해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앞으로도 공군은 명랑하고 즐거운 병영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칠 것이다. 과연 ‘병사 휴대폰 사용’과 ‘평일 일과 후 외출’이라는 새로운 정책 속에서, 공군 장병들이 어떤 선진문화를 만들어 나가게 될지 많은 기대가 된다. **AF**



제3훈련비행단의 단주임원사와 전대주임원사들. 가운데 1인석부터 시계방향으로 단주임원사 이진우 원사, 작전지원전대 김광섭 원사, 항공작전전대 이인희 상사, 기지방호전대 백승인 원사, 항공정비전대 이진택 원사.

시범운영 부대의 목소리를 듣다① 제3훈련비행단 단/전대주임원사 좌담회

병사들의 일과 후 휴대폰 사용과 평일 외출은 어떤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을까? 제일 궁금했던 것은 위의 제도를 운영하는 부대원들의 목소리였다. 월간 『공군』 편집실은 이를 알아보기 위해 작년 8월부터 '병사 휴대폰 일과 후 사용' 제도를 시범 운영 중인 제3훈련비행단(이하 3훈비)을 방문했다. 3훈비는 공군에서 가장 먼저 휴대폰 사용 시범운영을 시작한 부대로서, 타부대의 안정적인 시범운영을 위한 다양한 데이터를 제공해왔다. 먼저 만나본 이들은 3훈비의 단주임원사 및 4개 전대 주임원사다. 병사 휴대폰 사용과 외출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휴대폰 사용 이후 밝아진 병영 체감

AF : 안녕하세요. 바쁘신 가운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 합니다. 오늘 좌담회는 병사들의 일과 후 휴대폰 사용과 평 일 외출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한 자리입 니다. 우선 병사 일과 후 휴대폰 사용이 시작되면서 가장 달라진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백승인 원사(기지방호전대) : 우선 휴대폰을 사용하게 되면서 바깥과 소통이 잘 되는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병사들이 고민이 있으면 주임원사나 간부와도 이야기를 하지만, 본인 이 입대 전에 알고 지내던 사람들이나 부모님과 소통하면서 우울감이나 외로움을 많이 해소하는 것 같습니다.

AF : 그런 병사들의 긍정적인 변화가 실제로 체감이 되실 정도입니까?

일동 : 네

백승인 원사 : 평소 우울해하거나 관심을 갖고 지켜보던 병 사들이 휴대폰 사용 이후로 많이 밝아진 모습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김광섭 원사(작전지원전대) : 저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덧붙이자면, 지금 저희 주임원사들 세대 같은 경우 에는 디지털 세대가 아닙니다. 저희에게 휴대폰이라고 하면 전화, 문자 등의 연락 용도로 활용하는데 지금 세대 장 병들은 디지털 세대라서... 입대를 통해 사용을 못하게 되 면 허전함 같은 게 많을 것 같은데 이 휴대폰 하나만으로 바깥과의 소통부터 검색까지 다양한 것이 가능해지니까 안 정을 느끼고 마음이 든든해지는 게 있다고 해야 할까요.

AF : 생활관 문화에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 까요?

이진택 원사(항공정비전대) : 일단 생활관 풍경 자체가 상 당히 평온해졌습니다. 옛날에는 주말이든 평일이든 병사들 이 일과 후에 할 수 있는 게 특별히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 금은 생활관 지역에서 자유롭게 휴대폰을 사용하면서 다양 한 콘텐츠를 보거나 어학공부를 하는 모습이 많이 보입니 다. 사실 처음에는 휴대폰 사용이 부정적인 영향이 많지 않

을까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초창기에는 병사들이 휴대폰을 너무 많이 사용하기는 했었어요. 그런데 한두 달 지나면서 굉장히 문화가 편해지고 소통도 잘되고 업무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없습니다. 운동을 안 할 거라는 우려도 있었는데, 운동하고 싶은 병사들은 모여서 풋살도 하고 농구도 합니다. 옛날에는 무료했던 시간을 핸드폰으로 해결하면서 다른 것 들도 다 하는거죠. 병사들에게 할 일이 생기니까 오히려 악 폐습이 줄어드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인회 상사(항공작전전대) : 저희도 처음에 걱정을 한 건, 휴대폰 반입을 하면 과연 잘될까... 그런 걱정이 있었는데, 실제로 해보니 면담 오는 병사의 수가 줄었습니다. 남자친 구가 입대하면 흔히 고무신을 거꾸로 신는다고들 하는데, 그런 게 확실히 줄었습니다.

AF : 연애문제 때문에 고통 받는 병사들이 줄었다는 말씀이 시죠?

이인회 상사 : 그렇죠. 일과 후에 실시간으로 연락을 할 수 있으니까요. 또 병사들이 보통 휴가를 나가면 학교나 동아 리도 한 번씩 가기 마련인데, 그에 대한 소식을 단독방 같 은 걸로 계속 습득할 수 있으니 좋다고들 합니다. 그리고 공부하는 것도 모바일로 학습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시간날 때마다 하고, 저희가 걱정하던 것과 달리 상당 히 좋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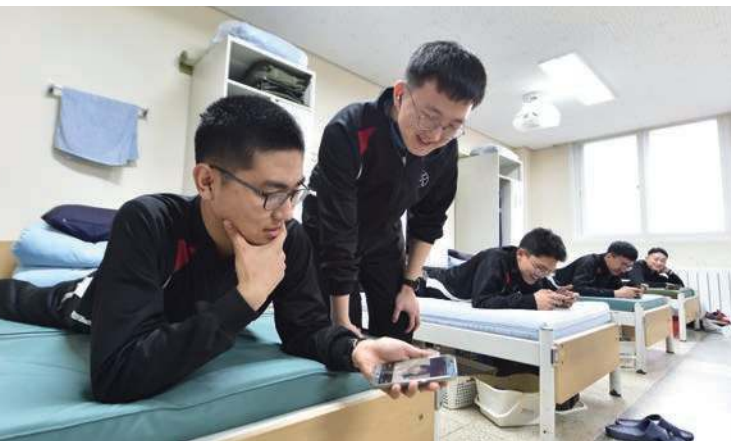
기지방호전대 백승인 원사(좌)와 항공정비전대 이진택 원사(우)는 병사들이 안정을 느끼고 생활관 풍경이 평온해진 것을 휴대폰 사용의 장점으로 꼽았다.

AF : 무척 좋은 제도로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사실 병사들이 병영에서 휴대폰을 사용한다는 것이 우리 군으로서 상당히 혁신 아니겠습니까? 이런 제도가 시행되었다는 것에는 어떤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진택 원사 : 그동안 병사는 병사라는 이유만으로 많은 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거의 모든 것을 제재해서 마치 집에 있는 애들처럼 관리를 해왔거든요. 그런데 병사들이 이제 휴대폰을 사용하고 외출을 함으로써 병사들의 격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소통하기가 편해지고 자연스러워졌어요. 격차가 줄어들다 보니까 다른 면담은 줄어드는데, 본인들이 생활하면서 불편한 것을 잘 얘기해주고 건의사항도 많이 얘기하게 되었습니다.

AF : 예전에는 어려워서 말도 못하던 것들에 대해 소통이 잘 된다는 말씀이시죠?

이진택 원사 : 예, 자신들의 위치가 올라간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휴대폰 사용으로 생활관 풍경은 이전보다 즐겁고 편안해졌다.

AF : 병사들이 '존중 받는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보면 될까요?

이진택 원사 : 그렇죠. 이제는 우리가 애 취급을 받지 않는구나. 우리를 인정해주는구나. 우리의 군생활은 개선되고 앞으로 개선될 여지가 있구나. 그런 기대감을 느끼는 겁니다. 휴대폰도 그렇고 외출도 그렇지만, 전(全) 부대 시행을 하면서 부정적인 측면이 두드러지지 않는다면, 확대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새롭고 혁신적인 제도, 시스템과 체계 마련은 현재 진행형

AF : 그럼 혹시 휴대폰 사용 때문에 생기는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백승인 원사 : 휴대폰 시범운영 초기에는 통제 앱이 있었는데 안정적이지가 않아서 사용을 중단했습니다. 이제 조만간 앱을 다시 사용한다는 말이 있는데, 무언가 제도를 시행하기 전에 체계가 잘 갖춰진다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체계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제도를 들여오다보니, 제도를 만들어나가는 과정이 너무 힘든거죠.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지만, 아예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뭔가 체계를 갖추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AF : '제도 운영도 좋지만 시스템과 체계 마련도 중요하다.' 아무래도 인원 관리 측면에서는 그런 부분이 몹시 중요하겠군요.

이진택 원사 : 좀 더 보완해서 말씀드리자면, 주임원사들의 입장에서는 병사들이 휴대폰으로 사소한 문제를 일으키는 것보다, 병영생활 부적응에 의해서 큰 사고를 치거나, 자살 사고가 일어나는 걸 막는 게 더 큰 임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제도가 생기면서 주임원사들에게 자꾸 채찍이 주어집니다. '잘 관리해라, 위반자를 찾아내라, 교육해라.' 이런 게 병사들하고 거리감을 만들어요. 주임원사들은 부모 같은 마음으로 병사들과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애로사항을 찾고, 병사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그러면서 믿음이 생기고, 그게 사고를 방지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제도가 만들어지면 그에 대한 채찍과 행정사항을 주임원사에게 많이 맡깁니다. 그러다보니 병사들이 주임원사를 피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새로 주어지는 임무를 소홀히 하면 위반사례가 발생하게 되고... 그러니까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임원사 본연의 임무를 어렵게 만드는 채찍이 계속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AF : 그런 애로사항이 있겠군요.

김광섭 원사 : 또 다른 애로사항이 있다면, 병사들이 휴대폰을 사용하게 되면서 사실관계에 기반하지 않은 신고글 같은 게 외부 채널에 게재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게 안타깝습니다.

AF : 휴대폰을 사용하면서 그런 글이 늘어났다는 말씀이 시죠?

김광섭 원사 : 예, 악폐습을 밝히고 줄이는 것은 물론 중요합니다. 실제로도 악폐습은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데, 국민신문고라든지, 인터넷 게시판 등을 통해서 검증되지 않은 이야기를 사건으로 만드는 경우가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AF : 그럼 병사들이 휴대폰을 쓸 수 있게 된 것과 발맞춰서, 휴대폰을 활용해 악폐습을 근절시킬 수 있는 창구 같은 걸 활성화한다면 좋겠네요.

이인회 상사 : 지금 같은 경우도 일과 후에 휴대폰을 쓰다 보니까,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하고 싶을 때 메신저로 종종 연락하는 병사들이 있습니다. 저와 본인 둘만 알 수 있게 고민사항을 이야기하는 거죠.

AF : 다른 병사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통이 가능하겠군요?

김광섭 원사 : 비밀이 보장되는 거죠.

이진우 원사(단주임원사) : 제일 중요한 건 명확한 지침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범운영 기간이다 보니까 저희의 요구사항에 따라 지침도 계속 수정이 되고 그랬는데, 올 7월에 정상시행이 될 때는 딱 정해진 구체적 지침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AF : 아무래도 시범운영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애로사항을 찾고 지침을 만들기 위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계속 지침을 수정해나가는 과정에서 가장 이슈가 됐던 부분이라든지, 노력이 필요했던 부분이 있다면 무엇이 있었습니까?

이진택 원사 : 저희가 본부에 어필한 게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가 지금 드러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어플의 개발, 그리고 두 번째가 병사 요금제. 병사들은 쓸 수 있는 시간이 적는데 너무 많은 요금을 내야 하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는 병사 생활관이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속도 문제. 이 세 가지를 지속적으로 본부에 얘기해 왔습니다. 사용시간이나 장소 같은 경우에는 계속 조정하면서 보완하고 있습니다.



휴대폰을 통해 비밀을 유지하며 병사들의 고민사항을 들을 수 있게 되었다는 작전지원전대 김광섭 원사(좌)와 항공작전전대 이인회 상사(우).

휴대폰은 '소통' 그 자체, 장점이 훨씬 많다

AF : 이번에는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병사들이 일과 후에 휴대폰을 사용하게 된다는 말을 맨 처음 들었을 때 무슨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진우 원사 : 제가 단주임원사에 상변한 게 5월인데, 6월에 문서가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6, 7월을 준비하고 8월부터 휴대폰 사용을 시작한다고 했는데, 처음에는 '이걸 어떻게 헤쳐나가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군에서 드디어 이런 것도 하는구나. 획기적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진택 원사 : 처음 언론에 휴대폰 사용이 보도되었을 때 의견이 극명하게 갈렸거든요. 민간에서도 그랬고, 우리 군에서도 그랬습니다. 그 와중에 저는 약간 호의적이었습니다. '내 아들이 지금 입대해야 하거나, 복무 중이라

면? 안 좋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본인의 자식이 군인이라면 과연 저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다보니 휴대폰 사용이 우울증이나 자살 문제에 획기적인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AF : 휴대폰을 그저 휴대폰이 아닌 ‘소통’으로 보신 거군요.

이진택 원사 : 네, 제가 자살예방교관인데, 소통이 사고예방에 얼마나 효과적인지 알기 때문에 휴대폰이 큰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제도든지 늘 양면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휴대폰 시행 이후를 살펴보면 우려했던 것보다 좋은 효과가 훨씬 많습니다.



병사들이 휴대폰으로 외부와 소통하며 느끼는 행복은 사고예방과 병영문화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다. 주임원사들은 이를 휴대폰 사용의 가장 큰 효과로 꼽았다.

AF : 현재까지 휴대폰 사용은 시범 기간이고, 이제 올해 7월부터 정식 사용입니다. 과연 이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려면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백승인 원사 : 우선 자율과 책임이라는 걸 제일 중점으로 생각하면서, 예상되는 문제는 교육을 통해 대비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어플과 체계가 만들어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진우 원사 : 정확한 지침, 그리고 잘 만들어진 어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말 수시로 교육이 필요합니다. 사용자들의 인식이 잘 갖춰져야 제도도 정착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진택 원사 : 긍정적인 시선을 가져달라고 하고 싶습니다. 주임원사들을 비롯해서 장병들도 선진병영문화를 위해 최선을 다 할 건데, 그 과정을 신뢰의 시선으로 바라봐주고 병사들을 믿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도 일탈을 일으키는 병사는 정말 소수, 일부의 병사이고 대부분 잘 믿고 따라와 주고 있습니다.

평일 외출, 소외되는 장병들을 위한 보완책 필요

AF : 이번엔 평일 외출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외출의 경우에는 2월 1일부터 시작이 됐는데, 어떠십니까. 체감되시는 게 있을까요?

이진택 원사 : 사실 휴대폰 사용 이후에 외출 제도가 시행되다 보니까, 쉽게 생각했습니다. 또 1비에서 먼저 시범운영을 했기 때문에 내용을 받아서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부 부서가 평일 외출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 같은 걸 미리하고 정책적으로 답을 내놨으면 더 좋았겠다 싶습니다.

이진우 원사 : 월 2회로 횟수를 제한하다 보니까, 뭔가를 배우거나 경험하기 위해서는 적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정말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 같고 본인 스트레스를 푸는 수준인 것 같습니다.

이인희 상사 : 외출을 나가면 음주사고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을 반복적으로 많이 실시했습니다.

백승인 원사 : 기지방호전대는 거의 모두 스케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제도가 만들어지든 똑같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진우 원사 : 휴대폰, 외출 제도 등에서 교대근무자들이 계속 소외감을 느끼게 됩니다.

단주임원사 이진우 원사는 제도의 올바른 정착으로 병사들이 행복한 부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밝혔다.

AF : 제도 시행도 중요하지만 그 제도 시행으로 파급되는 효과, 소외되는 장병들도 살펴봐야겠군요.

백승인 원사 : 그렇죠. 제도 시행에 따른 형평성과 보상 등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AF : 주임원사님들께서도 나름의 보완책 같은 걸 고민하실 것 같습니다.

이진우 원사 : 현재 인사행정처 주관으로 평일 외출 곤란자를 먼저 파악하는 중입니다. 보고된 부서에 한해서 별도의 보완책이 마련될 것 같습니다.

백승인 원사 : 그리고 사고예방에 대해서는 우선 교육을 반복하고, 부대 복귀 시에도 음주여부를 확인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봤을 때 군복 입고 술을 마시거나 그런 모습을 좋게 볼 수 없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택 원사 : 단주임원사 주관으로 병사들의 외적군기 같은 걸 제도적으로 바로 세우려는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병사들이 나가서 어떤 것을 즐기는지 살펴보니까 식당을 많이 갑니다. 그래서 주임원사단에서 논의하는 건 할인제도 같은 걸 지역사회랑 협의해서 만들고자 합니다. 병사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지역사회랑 맞춤형 할인 제도를 만드는 거죠.

AF : 지역사회랑 상생도 되고, 병사들 입장에서도 부담이 줄어서 좋겠습니다. 역시 제도 시행도 중요하지만 소외되는 장병들이 없도록, 그리고 제도가 수준 높게 정착 되도록 고민을 해야 하는군요.

제도 보완과 소통 강화를 통해 행복한 부대로

AF : 휴대폰 사용과 평일 외출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이인회 상사 : 비단 저회 3훈비만이 아니라, 육해공 시범부대 다 똑같은 겁니다. 보안 걱정하고, 음주사고 걱정하고... 그런 걸 부사관단이 어떻게 교육하고 관리해서 사고 없는 비행단을 만드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진우 원사 :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제도가 잘 정착되어서 병사들이 스트레스를 느끼지 않는 행복한 부대가 되면 좋겠습니다.

백승인 원사 : 저도 그렇습니다. 사고 없는 부대 만들고, 좋은 제도가 더욱 발전되어서 병사들이 많은 혜택 받고, 힐링하고 잘 복무하고 전역하면 좋겠습니다.

김광섭 원사 : 앞의 얘기에 다 공감하고, 병사들의 위상을 세워주고 인권을 지켜주면서, 군기강 확립과 안전사고 방지, 전투력 강화 부분도 우리가 되지 않도록 계속 고민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진택 원사 : 저는 이 두 가지 제도가 근무 형태상 육해공군 중에서 공군에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착도 가장 빠를 거라고 봅니다. 우리 비행단은 작년 8월부터 이 제도를 실시하고 또 ‘옴저버 하사’와 ‘관찰병사’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병행하고 있는데,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병영 내 사고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전에는 크고 작은 사고가 있었는데 제도들이 정착되면서 사고 없는 비행단으로 안착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병사들이 안정을 느끼고 있고, 개인적으로 할 일이 생기고, 새로운 제도로 소통을 강화한 게 효과적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물론 새로운 제도 때문에 전에 없던 사고가 생길 수도 있지만 긍정적인 효과가 훨씬 크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훨씬 더 명랑한 병영문화가 조성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AF : 앞으로도 이 제도들의 긍정적인 측면들을 극대화하면서, 소외되는 장병들이 없도록 보완 발전하는 게 중요하겠군요. 혁신적인 정책인 만큼 많은 우려의 목소리들도 있었는데, 이를 잘 해소해줄 수 있는 좋은 이야기들을 들은 듯합니다. 긴 시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AF**



평일 외출을 나와서 여유를 즐기고 있는 병사들. 왼쪽부터 장현우 상병, 박정희 병장, 김남훈 일병, 강영환 이병.

시범운영 부대의 목소리를 듣다② 제3훈련비행단 병사들과의 외출 좌담회



휴대폰 사용과 평일 외출 실시 이후 병사들의 생활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그리고 어떤 문화를 만들어나가고 있을까? 병사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보기 위해 그들과 함께 외출했다.

휴대폰 사용, 생활관 속 자연스러운 문화로

AF :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일과 후 휴대폰 사용과 평일 외출에 대한 병사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마련한 자리입니다. 간단한 질문부터 시작해볼까요. 일과 후 휴대폰 사용 제도가 시행된다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장현우 상병 : 제가 군대를 조금 늦게 왔는데, 입대를 좋은 시기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군대에서 휴대폰을 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신세계였고, 그냥 다 좋았습니다.

박정희 병장 : 저는 제도 시행 전년도에 입대했는데, 휴가를 나갈 때나 외출 시에만 휴대폰을 쓸 수 있어서 사지방(사이버지식정보방)에서 인터넷 강의나 영상을 시청하려면 기다려야 하다보니 불편함이 많았고,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면 불편함이 많이 해소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좋았습니다. 병사들 중에서는 ‘이게 되겠다.’ 싶어 하는 병사들도 있었고, ‘당연히 되어야 하는 건데 늦었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AF : ‘이게 되겠다.’ 했던 병사들은 어떤 이유였나요?

박정희 병장 : 군대에서 휴대폰을 쓴다는 거 자체가 안 믿긴다는 병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소수였습니다.

AF : 휴대폰을 쓰기 전과 후에 달라진 점이 있다면?

장현우 상병 : 휴대폰 사용 초기에는 휴대폰이 갑자기 생기자 다보니 과하게 몰입하는 병사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TV를 보듯이 휴대폰을 보는 정도의 느낌입니다. 다들 휴대폰에 익숙해져서 이전과 많이 달라졌다는 느낌은 모르겠습니다.

AF : ‘평범한 생활관 풍경에 휴대폰 하나가 더해진 정도’라는 건가요?

장현우 상병 : 예, 생활 속 하나를 차지하는 요소라는 생각입니다.

박정희 병장 : 우선 생활관 내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기사나 새로운 소식을 빨리 알 수 있게 되어서 좋습니다. 휴대폰 사용 전에는 외부와 연락할 때 수신용 전화기를 주로 썼

는데, 여러 병사가 같이 쓰는 것이다 보니까 시간 제약이 있었습니다. 부모님, 친구들, 여자친구와 통화할 때 시간에 쫓기는 느낌이 있었는데, 그런 게 많이 해소되었습니다. 은행 업무도 ATM에 가야만 할 수 있는 것들을 방에서 해결할 수 있게 되어서 좋습니다.

김남훈 일병 : 공중전화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것, 외부와 연락이 잘 된다는 것, 연락이 잘 되니까 일정 맞춰서 약속 잡기도 쉽습니다. 또 그러다보니까 저는 여자친구도 입대해서 생겼습니다.

일동 : 오오오!

AF : 또 여자친구 있는 사람 있나요? 여자친구의 반응은 어떤가요?

박정희 병장 : 저는 입대 전부터 만났는데, 여자친구는 연락을 자주 할 수 있어서 좋다고 합니다. 근데 저의 입장에서는 너무 부대에서 저만의 시간이 사라진 느낌이 들어서.....

AF : 이거 기사로 나가도 되겠어요? (웃음)

박정희 병장 : 괜찮습니다.

김남훈 일병 :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공감합니다. 혼자 웹툰이나 유튜브도 보면서 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다행히 그런 부분을 여자친구가 잘 이해해줘서 잘 만나고 있습니다.

장현우 상병 : 저는 휴대폰 사용 이전에 헤어져서... 만약 휴대폰을 더 빨리 쓸 수 있었다면 헤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배부른 소리 같습니다. (일동 웃음)



강영환 이병(좌)은 휴대폰 사용에 대해 '존중해준다는 느낌'이 의의라고 말했다. 김남훈 일병(우)은 군생활을 더 보람 있게 보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으뜸병사에 지원했다고 한다.



소통, 자율, 편리성 등 다양한 장점, '존중 받는다'는 느낌

AF: 휴대폰을 사용하게 되어서 가장 좋은 점은 무엇인가요?

김남훈 일병: 궁금한 게 생겼을 때 바로 알아볼 수 있다는 게 좋고, 휴대폰을 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게 좋습니다.

강영환 이병: 저는 심리적 안정에 크게 기여하는 거 같습니다. 다양한 환경에서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자란 사람들이 한 공간에 있다 보면 마찰이나 그런 걸 많이 겪을 수 있는데, 새로 알게 된 사람보다 오래 알고 지낸 사람에게 말 하면서 더 쉽게 안정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AF: 단체공간 안에서 개인만의 소통공간이 생긴다는 느낌인가요? (네, 맞습니다.)

장현우 상병: 우선 부모님과 연락을 자주 할 수 있어서 좋고, 수신용 전화기나 사지방 같은 경우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고 연락처 저장도 안 되기 때문에 급히 연락해야하는 몇 명과만 연락을 했는데, 이제는 폭 넓게 연락이 가능해서 좋습니다.

AF: 과거에는 외부와 연락이 되더라도 제한이 있고, 안 부만 묻는 정도였다면 휴대폰을 사용하게 되면서 정말 '소통다운 소통'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할 수 있겠군요.

박정희 병장: 제가 느끼기에 제일 좋은 점은, 뭔가를 사거나 돈을 보내줘야 할 때 바로바로 처리가 된다는 게 좋습니다. 인터넷 강의도 독서실에서 들을 수 있다는 게 좋습니다. 사지방의 경우는 시끌시끌한 분위기라 집중이 어려운데, 독서실에서는 집중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AF: 그렇다면 병사들 입장에서 이번 '일과 후 휴대폰 사용'이 갖는 의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강영환 이병: 너무 상투적일지도 모르지만, 헌법에 명시된 행복추구권의 보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병사들을 더 이상 통제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자율성

을 주고 존중해준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일동: 같은 생각입니다.

AF: 역시 제일 큰 건 '존중 받는다'라는 느낌이군요. 그렇다면 '존중 받는다'라는 느낌은 어떻게 느껴지는 건지 궁금하네요. '단순히 휴대폰을 쓸 수 있다, 없다'가 존중 받는다는 느낌을 결정할 거라고 생각하기는 어려운데요. 어떤 부분에서 존중을 느끼게 되는 건가요?

장현우 상병: 단순히 휴대폰을 쓸 수 있다는 점에서 존중을 느낀다기보다는, 그동안은 '그냥 시키는대로 해' 이런 느낌이 강했다면, 이제는 계급 상 가장 아래에 있는 병사들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면 병사들이 좋아할까 생각해준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AF: 정말 병사들이 느끼는 필요를 잘 반영한 제도가 나왔다는 느낌인가요?

강영환 이병: 현대사회에서 스마트폰은 사치품이 아니라 필수품입니다. 스마트폰이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으니까 병사들이 획일적인 틀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각자 개개인이 원하는 걸 할 수 있다는 점이 좋은 거 같습니다.

AF: 부대 안에서 주어진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바깥과의 연결의 창이 생겼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보면 될까요. 그럼 으뜸병사들의 입장은 어떤가요? 시범운영 부대 으뜸병사로서 어깨의 짐 같은 것도 있을 거 같은데요.

장현우 상병: 최근에 단 으뜸병사 자격으로 국방부 토론회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토론회에서 병사 휴대폰 사용에 대한 많은 우려의 목소리를 들었는데, 거기에서 '병사들은 충분히 휴대폰을 잘 사용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열심히 내고 왔습니다.

생소함을 넘어, 자연스러운 확대를 바란다

AF : 병사들의 목소리를 대표하기 위해서 노력했군요. 방금 얘기했듯이 병사 휴대폰 사용에 대한 우리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군기강이 해이해질 것이다. 휴대폰만 보고 있을 것이다. 전우애가 약해질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장현우 상병 : 그런 우려들은 대부분, 진짜 그게 위험해서 라기보다는 아직 병사들이 휴대폰을 쓴다는 거 자체가 생소해서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희도 처음에는 운동을 적게 할 것이다, 휴대폰만 볼 것이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실제 시행을 해보니 그런 우려와 같은 현상은 전혀 없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어색함, 생소함이 우려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영환 이병 : 단합력이 낮아지고 전우애가 없어질 거라는 우려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저는 같은 호실에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게임을 하거나, 평일에 외출을 같이 나가거나 그러는 걸로 봤을 때, 그런 우려는 전혀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는 시대가 변해서 온라인을 통한 소통이 당연해졌습니다. 그런 시대상을 반영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병사들은 휴대폰을 통해 병영내에서 새로운 방식의 소통을 하고 있다. 신세대 장병들에게 온라인을 통한 소통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AF : 휴대폰 사용 덕분에 문제가 해결되거나, 병영생활 측면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생기는 부분도 있나요?

김남훈 일병 : 주임원사님께 들은 이야기인데, 휴대폰 사용 전후를 기준으로 병사들의 면담 요청이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휴대폰을 통한 외부와의 소통이 병영생활 적응에 도움을 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박정희 병장 : 휴대폰 사용이 시행되기 전에는 상담을 받

으려면 상담병사를 찾아가야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메신저 같은 걸로 상담병사나 주임원사와 연락을 할 수가 있습니다. 휴가나 외출 때문에 보고를 해야할 때도 활주로 건너편에 상주하는 병사들이 메신저를 통해 보고할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AF : 사고예방 측면에서 체감되는 부분은 있나요?

김남훈 일병 : 휴대폰 사용 이후가 확실히 낮습니다.

AF : 어떤 점에서 그렇나요?

김남훈 일병 : 연락이 어렵던 예전에는 여자친구와 싸웠을 때 바로바로 풀 수가 없었습니다. 수신용 전화기는 오래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연락이 안 되는 동안 여자친구는 또 서운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휴대폰을 쓰면서 원할 때 길게 통화할 수 있기 때문에 커플들이 잘 안 깨지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AF : 그야말로 사고 예방이군요. 그럼 휴대폰을 사용하면 생기는 문제 같은 건 혹시 없나요?

김남훈 일병 : 처음에 휴대폰 사용을 시작하면서 너무 휴대폰만 하면서 누워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처음에만 그랬고 휴대폰을 쓸 수 있다보니 질리게 됐는지 점차 공부도 하고 운동도 하면서 다 잘 챙기는 거 같습니다.

강영환 이병 : 저는 사실 휴대폰을 많이 사용하더라도, 그게 그 사람 나름대로의 쉬는 방법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AF : 그럼 앞으로 이 제도가 어떻게 되면 좋겠습니까?

강영환 이병 : 저는 좀 더 자유롭게 되면서 동시에 개인의 책임도 분명하게 따진다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휴대폰 사용이나 외출에 대한 책임을 개인이 아닌 지휘관에게 모두 묻게 되면, 결국 또 제재로 이어지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연등시간에 독서실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시간이 늘어나면 좋겠습니다.

장현우 상병 : 아무래도 점점 자연스럽게 확대될 거 같습니다. 시간에 대한 제어도 사라지는 게 맞다고 봅니다.

박정희 병장 : 통신사별로 데이터 속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A통신사를 쓰는 병사들은 고화질 영상을 잘 보는데, 다른 병사들은 끊겨서 못 보거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보완되면 좋겠습니다.

김남훈 일병 : 휴대폰 사용 시간이 일과 후부터 21:30 까지잖습니까? 그런데 헌병의 경우는 휴대폰 사용시간과 근무가 겹쳐버리면 사용하기 힘듭니다.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저희는 16시부터 쓸 수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근무시간이 겹치면 아무래도 사용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보완해주면 좋겠습니다.

AF : 시범운영 기간에 그런 애로사항이 잘 반영되어서 보완되면 좋겠네요. 이제 7월부터는 일과 후 휴대폰 사

용이 정식 시행되는데, 이게 잘 정착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장현우 상병 : 제 생각에는 휴대폰에 대한 제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병사들은 휴대폰이 생겼음에도 불만을 갖게 되고 불편한 점만 이야기할 거 같습니다. 휴대폰에 대한 제어를 줄이고, 병사들을 믿어주는 시간을 갖는다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평일 외출, 즐거운 이벤트와 스트레스 해소 창구

AF : 이번에는 평일 외출에 대해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2월 1일부터 평일 외출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에 대한 반응은 어떤가요?

김남훈 일병 : 아무래도 휴대폰이 있다 보니까 별로 관심이 안 생겼고, 일과 후라서 몇 시간 안 되기 때문에 '굳이 나갈 필요가 있나' 이런 마음도 있었는데, 제가 직접 나가보니 그동안 먹고 싶었던 것도 먹고 하고 싶었던 것도 하고 게임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같이 피시방도 가고 그런 게 되게 좋았습니다.

박정희 병장 : 먼저 시범운영을 했던 1비에 친구가 있어서 어땠는지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1비의 경우는 처음에는 많이 나가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많이 안 나가게 됐다고 합니다. 제가 느끼기에 평일 외출의 좋은 점은 같은 방을 쓰는 병사가 생일일 때, 지금까지는 B.X.에서 과자를 사서 조출하게 축하하는 정도였는데, 이제는 단체로 나가서 고깃집 같은 곳에 가서 제대로 축하하고 케이크도 사줄 수 있어서 좋습니다.

강영환 이병 : 저는 책을 많이 좋아하는데, 직접 서점에 가서 책을 읽어보고 살 수 있다는 게 큰 매력입니다.

장현우 상병 : 추가를 하자면, 영화를 본다든가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다는 게 좋은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AF : 평일 외출이 파격적으로 병영생활을 바꾸지는 않더라도, 소소한 이벤트나 가끔의 즐거움,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을 준다. 그런 거군요. 만약 월 2회 제한이 없이, 모든 평일에 자유롭게 외출이 가능하다면 어떨까요? 물론 출타자 비율은 적정선을 유지한다는 전제입니다.

김남훈 일병 : 많이 나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는 사람도 많을 거 같습니다. 지금도 월 2회가 많다고 다 안 나가는 사람도 많고, 금전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별 감흥 없을 거 같습니다.



‘막힌 군대’에서 ‘열린 군대’로, 유의미한 군생활 하고 싶다

AF : 사실 미디어에서는 ‘군인’이 무척 바깥에 목말라있는 이미지로 다뤄지는데요. 의외로 지금 답변하는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부대 밖으로 나가는 것은 크게 중요한 요소가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보다 중요한 무언가가 있는 걸까요?

장현우 상병 : 아무래도 공군은 일과 후 개인시간이 보장되다 보니까, 직장인처럼 퇴근하면 침대에 누워서 휴대폰도 하면서 편히 쉬고 싶고 그런 게 있습니다.

박정희 병장 : 부대 안에서는 먹고 싶었던 게 밖에 나가면 생각이 안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에서는 치킨이 너무 먹고 싶는데 나가면 생각이 안 나기도 하고, 그러다보니까 부대 안에 복지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면 병사들로부터 반응이 좋을 거 같습니다.

AF : 그러니까 부대 안에서 식도락 같은 필요를 해결할 수 있으면 군이 외출이 중요한 건 아니군요? (네, 맞습니다.) 그럼 피시방을 가지 않아도 함께 게임을 할 수 있다면 군이 외출을 나갈 필요 없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필요가 충족이 되면...그러니까 병사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건 ‘군대라서’, ‘외출을 못해서’가 아니라, 원하는 걸 원할 때 할 수 없다는 점 때문이다.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런 면에서 휴대폰 사용은 그런 필요를 잘 포착한 거겠군요. 결국 휴대폰 사용과 평일 외출의 의미는 병사들의 목마름을 대단히 잘 이해하고 해결해줬다는 점이고, 그 부분이 존중 받는다는 느낌으로 이어졌다는 점이군요. 그렇다면 이런 제도의 시행이 군에 대한 인식에 어떤 변화를 줬을까요?

박정희 병장 : 옛날의 군대는 ‘가면 사회와 완전히 단절된다.’, ‘무조건 여자친구와 헤어진다.’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은 휴대폰을 쓸 수 있고 소통이 되다보니까 ‘군대에서도 소통이 된다.’는 인식이 생긴 거 같습니다. ‘막힌 군대’에서 ‘열린 군대’로 변해가는 느낌입니다.

장현우 상병 : 휴대폰 사용 이전에는 군대는 ‘그저 버티면서 견뎌야하는 곳’이라는 인식이었는데, 이런 제도들이 생기면서 사회와 많이 비슷해진 느낌입니다. 그래서 더 유익하게 시간을 보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휴대폰 사용이 되면서부터 단으뜸병사에도 지원하고 자기계

발도 열심히 하면서 군생활을 유의미한 시간으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AF : 그동안은 ‘버티기’에 에너지를 사용해왔다면, 이제는 ‘버티기’가 아니라 뭔가 해나갈 수 있는, 즐길 수 있는데 시간을 쓴다는 거군요.

김남훈 일병 : 저는 친구들 사이서는 입대를 늦게 한 편인데, 제가 입대할 때 친구들이 군생활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자대에 와보니까 생활하기가 무척 좋았습니다. 저도 여기에서 버티다기보다는 자기계발에 충실하고 싶어서 최근에 으뜸병사에 지원했습니다.

AF : 그럼 이제 시간이 다 되어가는데,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강영환 이병 : 휴대폰 사용과 평일 외출로 생기는 충격은 반드시 무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이 생겼을 때 그걸 혁신의 원동력으로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장현우 상병 : 휴대폰 사용과 평일 외출에 대한 외부의 우려가 많긴 하지만, 병사들도 모두 성인입니다. 충분히 자신을 제어할 수 있고 어떤 제도든지 잘 적응해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갖췄기 때문에 큰 우려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정희 병장 : 일부 병사들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지만, 그건 정말 일부라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병사들 차원에서 제도도 잘 정착될 수 있게끔 규정을 잘 지키면서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김남훈 일병 : SNS 댓글을 보면 휴대폰 사용에 대한 안 좋은 말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병사들도 쉴 때는 쉬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희 할 거 다 한 다음에 쉬는 것이고, 이것도 휴식의 방법이기 때문에 사고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거니까 좋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AF : 앞으로 이 제도들이 바르게 정착되기 위해서는 문화개선을 위한 노력에 병사들이 최대한 동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그 노력의 일환으로서 많은 장병들에게 좋은 메시지로 전달된다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동안 좋은 이야기 고맙습니다. **AF**



글
대위 박지완



사진
원사 안재경(11비)
상병 김래범(11비)



솥을 거는 사람들 제11전투비행단 급양중대

울적한 날에는 달달한 것이 당기고, 속취가 심한 날에는 칼칼한 것이 생각난다. '먹는다'는 것에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세 가지, 의식주 중에서도 식(食)만큼은 절대로 빼놓을 수 없다. 6만여 명의 장병이 숨 쉬는 공군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균형 잡힌 영양과 맛있고 즐거운 식사를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수고하는 이들이 있다. 바로 급양중대에서 근무하는 이들도. 이번 호에서는 장병들의 식사를 책임지는 사람들, 급양중대 장병 및 군무원을 만나본다.

(좌측부터) 제11전투비행단 급양중대 박길현 일병, 김희철 주무관, 임태은 주무관, 손승민 일병.



01. 식자재유통센터에서 제11전투비행단으로 옮겨갈 식재료들. 약 4끼를 만들 수 있는 양이다.
02. 식자재를 차량에 적재할 때는 종류에 따라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히 신경 써야 한다.

영내생활을 하는 장병들은 하루 세 끼를 모두 부대에서 먹는다. 당연히 준비하는 이들도 매일매일 하루 세 끼를 준비해야 한다. 장병들의 아침 식사 준비는 새벽 다섯 시부터 시작된다. 특히나 제11전투비행단(이하 '11비')은 근무 장병의 수가 많은 부대 중 하나로, 매 끼니마다 1,200인분의 식사를 준비해야 한다. 대량의 음식을 준비하는 일은 가정집에서 식사를 준비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음식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축적되어야만 제대로 된 식사를 준비할 수 있다.

식재료를 챙기는 것도 이들의 일이다. 급양중대 장병들은 매주 정해진 날에 식재료 보급을 위해 유통센터에 들른다. 이곳은 삼군 통합으로 운영되며, 공·육·해군 각 부대에 필요한 식재료를 배분해준다. 급양중대 장병들은 배분되는 부식의 수량과 질을 꼼꼼하게 확인한다. 또 달걀 등 파손되기 쉬운 식재료가 이동 중에 손상을 입지 않도록 여러 요소를 고려해서 식자재 운반 차량에 적재한다. 식사를 준비할 때 식단을 계획하고 사용될 식재료를 계산해서 남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하는 것도 급양중대 인원들의 몫이다.





지금도 조리장에 들어설 때면 다짐을 한다는 임태은 주무관.
부대 밥에서 어머니의 손맛이 나는 이유다.



김희철 주무관은 장병들이 근사한 한식당에서 밥을 먹는다는 느낌을
반도둑 노력한다고 말했다.

11비 급양중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임태은 주무관은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베테랑 조리군무원이다. 곧 군입대를 앞둔 아들을 둔 어머니인 임태은 주무관은 장병들을 볼 때 더욱 애뜻한 마음이 든다.

“다 ‘내 아들이다.’ 생각하면서 음식을 준비할 수밖에 없죠. 제가 준비한 음식으로 장병들이 더 건강해지고, 힘을 내서 각자에게 주어진 임무를 수행했으면 하는 바람이 가장 큼니다. 11비에서 근무하던 장병들이 전역할 때 저를 찾아와서 마스크 팩이라든지, 손으로 꼭꼭 눌러 쓴 편지를 주고서는 그동안 감사했다는 인사를 하고 갈 때 정말 보람을 느껴요.” 임태은 주무관의 말이다.

같은 곳에서 근무하는 김희철 주무관은 다수의 호텔과 리조트에서 20년 이상의 조리 경력을 가진 셰프 출신 조리군무원이다. 그는 화려한 경력을 바탕으로 장병들의 식사에 맛을 더한다. 조리도구를 다루는 솜씨가 예사롭지 않다.

“조리사라고 해서 음식을 만드는 일에만 신경을 쓰는 건 아닙니다. 조리실은 무엇보다도 위생이 중요하기 때문에 식재료의 보관부터 손질, 청소 등 위생에 관련된 부분은 하나하나 신경 쓰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군으로 들어오는 좋은 식자재를 가지고 장병들을 위한 맛있는 음식을 준비한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김희철 주무관의 말이다.

조리군무원과 급양병들은 모두 개인위생용구를 착용한 채로 조리에 투입된다. 이들이 준비해야 하는 음식의 양 자체가 많기 때문에 조리에는 큰 가스 솥을 사용한다. 재료를 버무리거나 저을 때는 조리삽을 사용한다. ‘삽으로 음식을 한다.’는 말은 농담이 아니다. 또, 조리장은 불을 많이 쓰기 때문에 덥고 습하다. 땀을 뻘뻘 흘리며 음식을 만드는 장병들의 모습을 보니 이곳이 또 하나의 최전방 임무지역이라는 생각이 든다.

가스 솥 앞에서 음식을 조리하고 있는 급양중대 장병과 군무원들.



튀김 솥 앞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닭튀김을 하고 있는 급양병들.





황태찌를 만들기 위해 식재료를 옮기고 있는 박길현 일병.



급양병은 정량배식을 위해 몇몇 음식은 직접 배식을 해주기도 한다.

박길현 일병은 셰프를 꿈꾸고 있다. 입대 전 유명 호텔에서 조리보조 업무를 맡아 경험을 쌓고, 셰프라는 꿈에 한 걸음 더 다가서기 위해 공군 급양병 입대를 선택했다. 군 복무를 미래를 향한 디딤돌로 삼기 위함이었다. 이곳에서 다양한 경험은 박길현 일병에게 좋은 자양분이 되고 있다.

박길현 일병은 급양병으로 근무하며 한식, 양식, 일식, 중식조리기능사와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틈틈이 공부하고 있다. 급양중대에는 조리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인원이 많아 조언을 구하기에도 용이하다. 그는 함께 군생활을 해가는 전우들이 식사를 하며 맛있게 잘 먹었다고 해줄 때가 가장 뿌듯하다고 했다.

제11전투비행단은 과거 6.25전쟁이 발발했을 때에도 공군기지였다. F-51D 무스탕 전투기를 몰고 적진으로 출격하던 아득한 선배들도 이 땅에서 식사를 했을 것이다. 지금 역시도 마찬가지다. 급양중대 장병들의 수고는 각자 맡겨진 자리에서 조국의 하늘을 지키기 위해 밤낮없이 임무를 수행하는 제11전투비행단 장병들이 힘을 내는 원동력이다. 술을 거는 사람들. 이들이 있기에 공군은 오늘도 밥심으로 난다. AF



이 날 장병들을 위해 준비된 한끼 식사. 갖은 음식이 먹음직스럽게 담겨 있다.



식사시간에 맛있게 점심식사를 하는 제11전투비행단 장병들. 밥에 담긴 애정과 격려의 마음도 크게 한 술 뜨는 것만 같다.



글
7급 조은혜
(미디어콘텐츠과)



사진
하사 이신실(19비)
일병 김현세(미디어콘텐츠과)

제3화 제19전투비행단
제162전투비행대대 엄지호 대위

LIVE PAGE

내 옆의 공군인 _____

공군의 이름으로 보내는
땀과 열정의 시간들.
우리들의 영웅
내 옆의 공군인을 만나다.



제19전투비행단 제162전투비행대대 엄지호 대위



조종사들은 성공적인 임무를 위해 비행시간의 몇 배나 되는 시간을 비행 준비, 임무 디브리핑(debriefing)에 쏟아 붓는다. 디브리핑이란 비행 후에 비행 과정과 결과를 분석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조종사 기량 향상을 위한 필수적인 절차다. 그런데 한 명의 전투조종사가 기존의 디브리핑을 발전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을 떠올린다. 비행 중에 얻는 다양한 데이터를 시각화할 수 있다면, 더 효과적으로 디브리핑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는 직접 프로그래밍에 나섰다, 상용 디브리핑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F-16의 디브리핑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 그 공로는 2018년도 「공군을 빛낸 인물」 신지식 정보화 부문 수상으로 이어졌다. 프로그래밍하는 조종사, 제19전투비행단 제162전투비행대대 안전편대장 엄지호 대위의 이야기다.

현재 하고 있는 일

F-16 전투조종사로서 군사 대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항공작전 및 훈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대 안전 업무를 기획·관리하며 안전에 대한 발전 과제를 개발, 교육하는 안전편대장의 업무를 함께 맡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투조종사는 비행만 하고 내려오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효과적이고 안전한 임무를 위해 조종사는 물론 수많은 사람들이 비행시간의 몇 배나 되는 시간을 비행 준비에 투자합니다. 마치 오케스트라를 준비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몇 분짜리 연주를 위해 연주자들이 오랜 시간을 투자하는 것처럼, 한 번의 비행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비행을 마치면 '디브리핑(debriefing)'을 하는데 해당 훈련에서 실질적으로 얻어가야 할 부분을 분석하고 자기화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의 비행을 위하여

디브리핑 체계 개발

전투조종사들은 비상대기 근무를 서게 되면 전투 장구를 착용한 채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긴 밤을 보내야 하다 보니 같이 근무를 서는 조종사 간에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어느 날 존경하는 선배이자 공동개발자인 양석환 소령님과 비상대기 근무를 하면서 항공기의 좌표, 자세, 속도 등의 텔레메트리 데이터(telemetry data)를 가시화할 방법에 대해서 논의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그 데이터를 상용 디브리핑 프로그램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컨버터(data converter)를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디브리핑하고 있는 임지호 대위와 편대원들



F-16PBU 디브리핑 체계를 테스트하는 모습

전투조종사이자 프로그래머

공군사관학교에서 항공우주공학을 전공했습니다. 돌이켜보면 당시 인공위성 궤도를 연구했던 것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때 프로그래밍에 대한 기초지식을 얻었고, 인터넷에서 동영상 강좌를 보면서 프로그래밍을 공부했습니다. 프로그래밍을 하면서 궁금한 사항들은 오픈소스로 제공되는 많은 자료들을 참고해가며 살을 붙여갔습니다. 개발된 디브리핑 체계의 최초 버전은 2016년 4월경 제작했고 그 이후 대대원들과 지속적으로 논의하며 프로그램을 개선하기 시작했습니다. 2016년 말엔 개발된 디브리핑 체계를 군에서 통용화할 수 있도록 보안성 검토, 라이선스 구매 등 모든 절차를 마쳤습니다. 이후 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디브리핑 현장에 도입하여 효과가 있는지 검증했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 2018년도 「공군을 빛낸 인물」 신지식 정보화 부문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같이 작업을 했음에도, 후배에게 공을 돌린 양석환 소령님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F-16PBU 3차원 임무 디브리핑 체계

기존 디브리핑은 항공기 앞에 장착된 카메라의 녹화영상과 조종사 기억을 통해 이뤄집니다. 여기에 실제적이고 객관적인 디브리핑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데이터를 3차원 화면으로 보여주는 것이 'F-16PBU 3차원 임무 디브리핑 체계'의 핵심입니다. 이 체계의 가장 큰 장점은 다른 조종사의 비행을 간접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공중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더 효과적인 디브리핑이 가능합니다.

개발된 디브리핑 체계를 도입해서 운용하던 어느 날, 부대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입조종사가 ACM(Air Combat Maneuver)¹⁾ 임무 단독비행 가능 자격을 얻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연구를 했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수년 간 저장된 다른 편조의 임무자료를 토대로 가상훈련을 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등급 조종사가 숙련급 기량에 도달하기까지의 시간과 자원을 3차원 디브리핑 체계가 획기적으로 줄여준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개발자로서, 또 교관 조종사로서 참 뿌듯한 순간이었습니다.

1) ACM (Air Combat Maneuver) : 3기 이상의 다수 항공기가 급변하는 공중상황 속에서 상호 간 협조를 유지하며 가장 효과적으로 적을 격추하기 위한 공중전투기동훈련. 근거리에서 다수 항공기가 기동하기 때문에 고난이도 임무로 구분한다.



고등비행훈련 수료 후 기념사진(2011. 12.)



「공군을 빛낸 인물」 상금을 하늘사랑장학재단에 기부한 이유

어느덧 공군에서 비행을 시작한 지 9년의 시간이 지났고 그간 많은 일이 있었 습니다. 지난 2013년 비행사고로 순직하신 故 노세권 중령님은 제가 고등비행 훈련을 하던 당시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한 담당교관이셨습니다. 같이 순직하 신 故 정진규 소령님도 고등비행훈련 마지막 계기평가를 마치고 처음으로 타 기지로 전개할 때 함께하셨습니다. 마침 그때 전개를 했던 기지는 지금 제가 있는 제19전투비행단입니다. 두 분 다 F-16 기종 출신이셨고, F-16을 지망했던 저에게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큰 영향을 주셨습니다. 어느새 순직 조종사들이 이름 모르는 누군가가 아니라 동료이고 선배이자 가족이 되어버렸음을 실감 합니다. 그들과 함께했던 그 순간을 기억하며 작게나마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 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재단이 더 알려져서 더 많은 사람들이 뜻을 같이하길 소망합니다.

변화를 선도해나가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번에 창안 및 제안 업무를 하면서 각계각층에서 많은 분들이 공군의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른 훌륭한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도 제가 ‘공군을 빛낸 인물’로 선정된 이유는 전투조종사로서 창끝 전력의 임무를 수행하면서 프로그램 개발 등의 활동을 병행한 점을 인정받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F-16PBU 성능개량 전력화의 실무를 경험하면서, 신무기 체계가 도입될 때 강점은 최대한 살리면서 동시에 변화에 의한 혼란을 줄이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몸으로 느꼈습니다. 우리 공군은 항공기와 미사일을 주로 다루기 때문에 현대 과학과 기술의 변화에 민감할 뿐 아니라 영향도 많이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이러한 분야에 관심을 갖고 변화가 필요할 때 이를 올바른 방향으로 리드할 수 있는 군인이 되고 싶습니다. [A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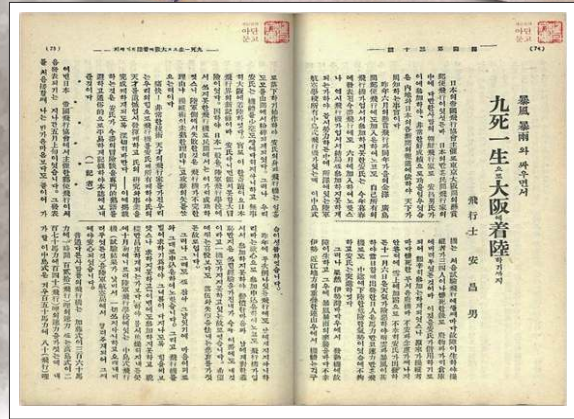
LIVE PAGE(내 옆의 공군인)는
공군SNS(페이스북, 유튜브, 블로그)에서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날, 우리 하늘

지상(紙上), 지상(地上)에 펼쳐진 하늘



▲ 개벽(開闢) 1922년 12월호에 실린 안창남의 수기, 출처 : 아단문고 홈페이지

일제강점 하의 조선인들에게도 고개만 들면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하늘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다. 억압과 차별, 오욕이 얽힌 조선땅에 비하면 하늘은 자유로운 공간이었다. 그 하늘을 비행기가 가로질러 난다는 것, 그 광경을 광장에 모인 조선인들이 지켜본다는 것은 그 자체로 의미 있는 일이었다. 일본인 비행사가 탑승한 비행기가 우월함을 뽐내며 식민지배의 정당성을 과시하는 시험비행이든, 미국인 아트 스미스(Art Smith)가 이름만큼이나 화려한 비행술을 선보인 곡예비행이든 그 시절의 하늘과 비행기는 조선인들의 일상에 청량감을 주는 이벤트로 다가왔을 것이다.

하지만 비행기가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장면은 머리 위에서만 경험해야 하는 것이 아니었다. 실제 비행은 아니지만 비교적 손쉽게 하늘을 상상하고 비행과 관련된 지식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 바로 신문과 잡지, 서적을 통해 하늘과 비행에 대한 동경을 나누는 것이었다. 말하자면, 지면(地面) 위에서 지면(紙面)상에 하늘에 대한 이야기를 쓰는 것.

구한말부터 독립신문(1896)을 비롯한 신문들이 간행되기 시작했고, 1900년대 중반부터는 대한자강회월보(1906) 등의 잡지들도 잇달아 창간되었다. 이러한 출판

물의 증가는 갑오개혁(1894~95) 이후 한글이 공적 영역의 언어로 정착되면서 일반 대중이 독자층을 형성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즉, 출판물이 한글을 기반으로 제작되고 이를 많은 대중이 읽게 되면서 누구나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생산하고 보급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이다.

이 같은 근대적 출판 매체의 출현은 조선인들에게 비행기, 비행사, 하늘 등과 관련된 감각을 형성해 주었다. 한반도 상공에 최초로 비행기가 뜨기도 전, 이 땅의 사람들은 지면 위에서 하늘과 만났다. 특히 가지각색의 잡지에는 하늘, 비행과 연관된 내용이 연이어 실리면서 널리 읽히고 있었다.

서우학회의 기관지 서우(西友)는 “우리 청년의 교육을 면려(勉勵)하여, 인재를 양성하고 대중의 지식을 개발하는 것”이 국권 회복의 기초라고 밝히며 민족자강과 교육구국사상을 제시하는 글들을 수록하고 있다. 박성흠이 쓴 공중비행기의 대경쟁(제4호, 1907.3.1.)은 유럽에서 최초로 성공한 동력 비행의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파리에 거주하던 브라질 출신의 비행기 발명가 뒤몽(Alberro Santos Dumont)은 1906년 11월 12일 직접 제작한 비행기로 220m가량 비행하는 데 성공한다. 박성흠은 뒤몽의

시험비행이 갖는 의미를 간파하는데, 비행기가 이제 걸음마를 댄 수준에 불과하지만 스티븐슨의 증기기관차처럼 곧 상용화될 것이라고 예측했던 것이다.

대한학회 또한 위태로운 국운 앞에 계몽과 교육을 기치로 내걸고 대한학회월보(大韓學會月報)를 펴냈다. 이 잡지는 잡찬(雜纂)이라는 표제 아래 짤막한 글들을 게재하여 새로운 사상과 문물을 소개하곤 했다. 공중비행선(空中飛行船) (제6호, 1908. 7. 25.)은 독일의 체펠린이 제작한 비행선이 1907년 성공적인 비행을 마치기까지의 경과를 알리고 있다. 눈길이 가는 것은 독일을 비롯한 서구 열강은 물론, 일본 역시 곧 비행선을 갖게 될 것이며 청나라도 “주미공사에게 명하여 1개를 구매하기를 협력 중”이라는 후문을 남긴 대목이다. 이 행간은 나라의 존망이 경각을 다루던 당시, 우리도 비행선을 속히 도입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이름 모를 필자의 조바심을 추측하게 한다.

3·1운동 이후에는 일제의 언론 통제가 완화되면서 더욱 다양한 잡지들이 줄지어 출간된다. 대중잡지의 시대라고 할 만한 1920년대, 최대의 종합잡지는 천도교 계통에서 발행한 개벽(開闢)이었다. 안정적인 편집체제와 전국적인 배포망을 갖춘 개벽은 1926년 강제 폐간될 때까지 평균 8천 부의 판매부수를 올릴 정도였다. 내용이나 체제가 식민지 조선인의 계몽, 조선 문화의 개조에 무게를 두었기 때문에 사회 제반 영역에서 새로운 사상을 소개하거나 대중의 관심이 높은 시사문제를 다루기도 했다.

의욕적인 기획과 편집으로 대중화에 성공한 개벽이 주목한 인물 중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안창남이 있다. 1920년 12월, 개벽은 “비행술을 연구하는 우리 청년”으로 일본에서 활동하는 “20세 홍안(紅顔)의 조선청년 안창남”을 소개하고 그가 10월 15일에 직접 쓴 편지를 전재하고 있다.

“대단히 위험하게 들리는 그곳에서 얼마나한 고통으로 지내시는지 참으로 궁금”하다는 안부로 시작하는 이 편지에서 안창남의 목소리를 느낄 수 있다. 그는 자신이 우

여곡절 끝에 오구리비행학교에 와서 비행술을 배우기까지의 여정을 생생하게 들려준다. 그리고 비행술을 배우는 풍경을 그리기도 하고, 늘 위험에 노출된 비행사의 고충을 풀어놓기도 한다. 하지만 더 절절하게 다가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안창남의 육성이다.

우리 조선청년은 비행술에 대하여도 이곳 사람보다 낫다는 말을 선생님의 입으로 들었습니다. 자랑은 아니합니다만 온 장군(장덕창)도 그렇고 김 군(김경규)도 나도 역시 그렇습니다. 같이 연구하는 일본사람 중에 누구에게든지 저지 아니합니다. (……) 큰 일, 큰 희망을 목전에 가지고 있는 우리 중에 뜻있는 청년이거든 아무 주저 말고 아무 공포를 말고 서기 늦지 아니하게 연구할 일입니다.

안창남은 “위험하고 고통 많은” 조선땅에 있는 동포들의 안녕을 기원하며 편지를 맺는다.

개벽은 1922년 12월 안창남의 수기 폭풍 폭우와 싸우면서 구사일생으로 오사카(大坂)에 착륙하기까지를 신는다. 이 수기는, 일본 제국비행협회에서 주관한 우편비행에 참가했다가 비행기 고장과 악기상으로 죽음 문턱까지 갔던 경험을 서술한다. 실감 나는 절박함을 선사하는 한편, “이번 비행에 조선사람이 나 외에 한 사람이라도 더 있었으면 나는 벌써 중도에서 착륙해 버리고 말았을 것”이라는 문장은 큰 울림을 준다.

이 땅의 사람들이 하늘을 나는 비행기를 만난 것은 분명 전에 없던 경험이었다. 하지만 그들이 별세계에서 뜬 떨어진 박래품(舶來品)을 보고 감탄한 것만은 아니었다. 그것은 어쩌면 상상만 해왔던 비행기의 자유로운 유행을 눈으로 확인한 반가움일지도 모르겠다. 일제 강점 전후 등장한 대중적 잡지들은 조선인들에게 하늘과 비행기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는 데 더없이 좋은 교재였다. 안창남에 사람들이 열광한 것 역시 지면(誌面)을 통해 입소문으로 알고 있던 영웅을 드디어 만났기 때문이었다. AF

부대 개방 행사 일정

공군 창군 70주년 제4회 Space Challenge

대회 일정은 기상 등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포털사이트나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서 '스페이스 챌린지'를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대회 구분	일자	주관 부대	관련 문의
예선 대전 / 세종 / 충북남부	4. 6.[토] 4. 7.	제17전투비행단	043-200-2221~2
부산 / 울산 / 경남	4. 13.[토] 4. 14.	제5공중기동비행단	051-979-2051~2
충북 북부	4. 20.[토] 4. 21.	제19전투비행단	043-849-6151~2
대구 / 경북 남부	4. 27.[토] 4. 28.	제11전투비행단	053-989-3092~4
인천 / 경기	5. 11.[토] 5. 12.	제10전투비행단	031-220-1131~2
서울 / 성남	5. 12.[일] 5. 19.	제15특수임무비행단	031-720-3071~3
전북	5. 18.[토] 5. 19.	제38전투비행전대	063-470-2071~2
충남	5. 26.[일] 6. 1.	제20전투비행단	041-689-1151~3
강원 영동	6. 1.[토] 6. 2.	제18전투비행단	033-649-2091~2
강원 영서	6. 2.[일] 6. 8.	제8전투비행단	033-730-4181~2
제주	6. 8.[토] 6. 9.	방공관제사령부	070-7790-6061~4
광주 / 전남	6. 8.[토] 6. 9.	제1전투비행단	062-940-1071~2
경북 북부	6. 15.[토] 6. 16.	제16전투비행단	054-650-2271~2
본선 Space Challenge 본선	9. 7.[토] 9. 21.	공군사관학교	043-290-6091~2

공군과 함께 만드는
즐거운 추억!

가족들과 나들이,
공군 부대개방행사로
어떠신가요?

부대개방 행사

Space Challenge 에 본선 및 참가 행사에는 부대 개방 및 블랙이글스 에어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 기상 등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행사 명칭	일정	장소	문의
공군작전 전승행사	9. 5.[목]	제18전투비행단	033-649-2021
서울 ADEX 2019 (일반관람)	10. 19.[토] ~ 20.[일]	서울 공항	042-552-5914
2019 사천에어쇼	10. 24.[목] ~ 27.[일]	제3훈련비행단 및 경남 사천 일대	055-831-2061



축하비행 일정

7분 이상의 디스플레이 일정입니다.
 기상 등의 사정에 따라 일정 및 디스플레이 시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블랙이글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각 행사에 대한 안내는 행사 주관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사 명칭	일정	장소	디스플레이 시간
진해 군항제	4. 5. (금)	진해 공설운동장	23분
제14회 청년낙동강 유채축제	4. 14. (일)	창녕 남지체육공원	23분
포항 해병대 문화축제	4. 28. (일)	포항 종합운동장	15분
제97회 어린이날 기념행사	5. 5. (일)	천안 독립기념관	15분
제7회 충남도민 체육대회	5. 16. (목)	서천 종합운동장	23분
제25회 충남 장애인체육대회	6. 13. (목)	태안 종합운동장	15분
제22회 보령머드 축제	7. 21. (일)	보령 대천해수욕장	23분
2019 울산 조선해양 축제	7. 28. (일)	울산 일산해수욕장	15분
강릉 경포 썸머페스티벌	8. 3. (토)	강릉 경포해수욕장	23분
제58회 통영 한산대첩축제	8. 10. (토)	통영 이순신공원	23분
제74주년 광복절 기념행사	8. 15. (목)	천안 독립기념관	15분
제27회 서울 국제 휠체어 마라톤대회	9. 1. (일)	서울 잠실 주경기장	7분
오산 Air Power Day	9. 21. (토)~ 9. 22. (일)	오산	23분 (2회)
제65회 백제문화제	9. 29. (일)	부여 구드래둔치 일원	15분
국군의 날 행사	미정	미정	미정
지상군페스티벌 [계룡 군문화축제]	10. 5. (토)	계룡 진도대교 인근	15분
제21회 김제 지평선축제	10. 6. (일)	김제 벽골제	23분
일곱 번째 세종축제	10. 9. (수)	세종 호수공원	15분
제6회 항공레저 스포츠제전	11. 9. (토)	경남도청서부청사	23분

블랙이글스

행사 일정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

올해도 환상적인

에어쇼로 찾아갑니다



군(軍) 복무 중 발생한 억울한 사망사고를 다시 조사합니다.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출범

군 복무 중 발생한 사망사고 중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하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사고나 사건에 대하여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자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출범하였습니다. 그동안 억울하고 궁금하셨던 사건에 대해 신청해 주세요.

진정대상

- ◎ 1948년 11월 30일부터 2018년 9월 13일까지
군(軍) 복무 중 발생한 사망사고 중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건

접수방법

- ◎ 온라인(e-mail)접수 | truth2018@korea.kr
- ◎ 우편·방문 접수 | 서울 중구 소공로 70(충무로1가),
포스트타워 A동 14층
- ◎ 팩스접수 | 02-6124-7539
- ◎ 접수기간 | 2018.9.14. ~ 2020.9.13. 9시-18시

신청서류

- ◎ 진정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 등
기타 참고자료, 증거자료 등도 자유로이 제출가능

전화문의

- ◎ 02-6124-7531~7532

홈페이지

- ◎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www.truth2018.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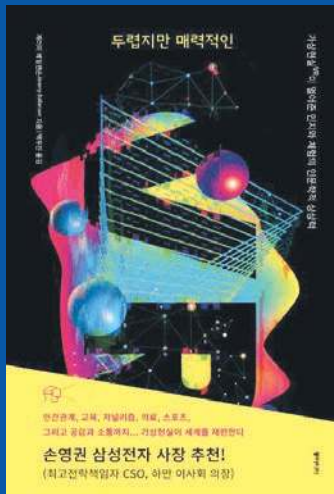


1·1·1 독서

1·1·1 독서운동은 1인 1개월 1권 이상 독서하기를 목표로 공군에서 진행되고 있는 캠페인입니다.

월간 「공군」이 추천합니다!

지휘관 추천도서



[인문] 가상현실(VR)은 인간의 삶을 어떻게 바꿔놓을까?

가상현실 분야의 선구자이자 심리학자인 제러미 베일렌슨의 저서 『두렵지만 매력적인』. 그의 주장대로 가상현실은 인간의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강한 정서적 힘을 가지고 있다. 가상현실을 경험하는 개인은 그전에 다른 매체로는 느낄 수 없었던 ‘현존감’을 체험한다. 이런 현존감은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세상을 상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를 토대로 가상현실은 새로운 미래를 이끌어 나갈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정신의학, 교육, 환경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이 가능한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가상현실 콘텐츠를 만들지, 그걸 만들기 위해 어떻게 해나가야 하는지 등이다. 이 책은 이런 우리의 고민들에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첫째, 이것이 가상현실에 있을 필요가 있나 자문해보라. 둘째, 사람들을 아프게 하지 마라. 셋째, 안전하게 하라.’

두렵지만 매력적인 / 제러미 베일렌슨 / 동아사이 / 2019. 2. 20. / 352쪽 / 18,000원

일반장병 추천도서



[과학] 잠만 잘 자도 인생이 달라진다.

세계적인 신경 과학자이자 수면 전문가인 매슈 워커의 첫 번째 저서인 『우리는 왜 잠을 자야 할까』. 지금까지 잠을 자는 시간은 매우 비생산적인 시간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인간은 전체 인생의 3분의 1을 잠을 자면서 보내며, 모든 생물이 잠을 자는 걸 보아 잠에는 엄청난 힘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저자는 꿈이 어떻게 학습 효과, 기분, 활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지 설명한다. 우리는 잠을 충분히 잠으로써 강화된 기억력과 높은 창의력을 얻을 수 있다. 또 잠은 우리의 뇌와 몸의 건강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유일한 수단이다. 실제로 충분한 수면은 암과 치매를 예방하고 심장 마비와 뇌졸중 위험을 줄여준다. 이렇게 많은 혜택을 가졌음에도 잠은 그동안 도외시되어왔다. 우리 인생의 3분의 2를 제대로 살기 위해 나머지 3분의 1을 재조명할 시기다.

우리는 왜 잠을 자야 할까 / 매슈 워커 / 열린책들 / 2019. 2. 25. / 512쪽 / 20,000원



11비, 제100주년 3·1절 기념 만세삼창

제11전투비행단은 3월 1일(금) 제100주년 3·1절을 맞아 '전 국민이 함께 하는 만세 삼창'에 공군 대표 비행단으로 참가했습니다.





공군사관학교 67기 졸업 및 임관식

참모총장은 3월 8일(금) 공군사관학교 67기 졸업 및 임관식에 참석하여 4년간의 힘든 생도생활을 마치고 임관하는 148명의 신입 소위들을 축하하고 격려했습니다.

장성·대령 전역식

참모총장은 2월 26일(화) 계룡대 연병장에서 장성·대령 전역식을 주관했습니다. 참모총장은 국가 안보와 공군 발전을 위해 헌신한 전역자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한편, 그동안 쌓아온 업무 역량과 리더십을 바탕으로 국가와 사회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교육사,
제48기 항공과 졸업 및 임관식**

교육사령부는 2월 26일(화) 임관자 가족과 친지, 재학생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48기 항공과학고등학교 졸업 및 임관식을 거행했습니다.



**1전비,
'19-1차 고등비행교육과정 수료식**

제1전투비행단은 2월 28일(목) '19-1차 고등비행 교육과정 수료식을 거행하였습니다.



**3훈비,
KT-1 제독훈련**

제3훈련비행단은 3월 5일(화) KT-1 제독훈련을 실시했습니다.



**15비,
생화학 테러 대비 훈련**

제15특수임무비행단은 3월 14일(목) 대테러초동 조치반 생화학 테러 대비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16전비,
'19-1차 전투태세훈련(ORE)**

제16전투비행단은 3월 11일(월)~14일(목) '19-1차 전투태세훈련(ORE)을 실시했습니다.



**18전비,
ARTS 장비시연회**

제18전투비행단은 3월 13일(수) 활주로 불발탄 원격 처리장비(ARTS) 시연회를 개최했습니다. 

담벼락

그 일흔여섯 번째 이야기
「외출」

제18전투비행단 헌병대대
병장 이태열



평일 외출 제도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

‘이번 생활관장 회의에서 전파할 사항 중 하나는 바로 병사 일과 후 평일 외출이 곧 시행된다는 것이다. 알고 있도록!’

거짓말 같았다. 뉴스에서만 보던, 옛 선임들과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던 바로 그 평일 외출 제도가 정말로 시행되려고 한다니. 나는 마냥 좋기보다는, 우선 걱정이 되었다. 지금 2달에 한 번 시행하는 자기계발 외출 제도만 해도 많은 일이 생기는데, 과연 평일 외출까지 시행된다면 무슨 일이 생길까 하는 걱정이었다. 계급이 올라갈수록 변화를 싫어한다는 말이 있는데,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주말 외출을 나가면 하루 종일 PC방에서 눈이 빨각게 될 때까지 게임을 했기에, 외출을 나갈 때면 엄청난 피로감을 느끼곤 했다. 그러면서 ‘군인이 하루 외출 나가서 대체 무얼 하겠어? PC방이라도 있는 게 다행이지!’라며 자기 위안을 하곤 했다.

그러나 요즘 평일 외출을 다녀온 후임들과 대화하며 여태껏 나의 생각이 잘못 됐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래봐야 PC방이나 다녀왔겠지.’라는 생각으로 뭘 하고 왔냐고 물어보면 그들은 환하게 웃으며 같이 나간 사람들끼리 밥 먹고 노래방 갔다가 돌아왔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면서 ‘나가지 않고 부대에 있는 것보다는 외출을 나갔다 오는 게 훨씬 나은 거 같다.’라고 덧붙였다. 나는 항상 ‘나’ 위주로 생각하며 나가서 뭘 할까 생각했었는데, 나의 후임들은 ‘나’ 위주가 아닌 ‘같이’ 하는 일 위주로 생각한 것이다.

정말 창피했다. 그리고 ‘나에게 외출은 무엇이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단지 후임들과 함께 한다는 이유만으로, PC방에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냈던 것은 정말 시간 낭비였다. 군내에서가 아닌 군외에서도 같이 이야기하고 웃으며 함께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나 많았는데도 그러지 않았던 과거가 후회되었다. 평소 생활관장직을 맡으며 후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잘 챙겨주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이야기를 잘 들어주었던 걸까 하며 스스로를 되돌아보았다.

평일 외출이 시행되면 후임들이 술 마시고 사고 치지는 않을까 하며 부정적인 생각을 먼저 했던 내가 바보 같았다. 나는 다시 한 번 생각을 고쳐먹었다. 평일 외출이라는 좋은 제도가 생긴 만큼, 좋은 선임으로서 모범을 보여주며 후임들과 좋은 시간을 갖기 위해서 노력해야겠다고. 또한 이 제도가 앞으로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지킬 것은 지키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않으며, 우선적으로 군인의 자세를 지켜야겠다.



제11전투비행단 기지방호작전과
일병 이지훈

익숙함 뒤의 소중함



평일 외출 제도가 전면 시행되고 많은 전우님들이 그동안 하지 못했던 다양한 여가생활 및 복지 혜택을 누리고 있을 것입니다. 부대원들과의 단결을 도모하는 소모임, 병원 진료, 문화생활 등 바깥에 남겨두고 온 것들과 다시 만나는 시간은 특별하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저에게 있어서 첫 외출은 조금 더 특별한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첫 외출을 나갔을 때 저도 무엇을 할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여자친구를 만날 수도 있었고, 문화생활을 즐길 수도 있었으며, 동반 외출을 통해 단결을 도모할까도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하던 중 아버지와 전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동안 제게 별 일은 없으셨는지, 간단한 제 안부를 물어보셨습니다. 그리고 별 다른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부대와 가까이 살고 있던 터라 자주 하는 전화는 아니지만, 어쩐지 아버지는 전화 끊기를 주저하셨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무슨 일이 있는지 물어보았고, 아버지는 요즘 적적해서 제가 많이 그림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바깥에 두고 온 가장 소중한 무언가를 잊

고 있었다는 생각에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는 2년 전 크리스마스에 응급실을 다녀오셨습니다. 그리 많은 연세는 아니신데도 급성 심근경색으로 인해 생명이 위급할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빠른 신고 덕분에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셨지만, 아버지는 부대 앞에서 하시던 편의점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항상 편의점에 출근하실 때마다 저와 한 발이라도 가까이 있으신 것 같라며 좋아하시던 아버지. 아무리 전투기의 소음이 크게 들려도, 그 안에서 나라를 지키는 아들을 자랑스러워하시며 웃으시던 아버지. 그 날, 저는 다음 주에 있을 외출 사유 가족 면회를 적었습니다. 밖과 안의 경계를 넘나들 수 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잊고 있던 제가 부끄러워진 하루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첫 외출에서 아버지와 식사를 하고 집에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또, 아버지가 일하시던 편의점에서 잠깐 시간을 보냈습니다. 비록 짧게만 느껴지는 시간이었지만 저에게는 돌아오는 길마저 행복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비단 저만이 아니라, 전우님들도 바깥에 두고 온 소중한 것들을 익숙함에 가려 잊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소중한 것들을 외출이라는 기회를 통해 하나씩 찾아가며 의미 있게 보내는 것은 어떨까요?

제18전투비행단 정보통신대대
상병 박기범

동지를 떠나 날아가는 새처럼



아기 새는 처음 비행을 배우기 위해 어미 새로부터 가혹한 교육을 받는다. 어미 새는 먹이를 통해 아기 새를 바깥으로 유인하거나, 강제로 밀어버린다. 그러고는 그대로 방치한다. 아기 새를 위험한 환경에 노출시켜 본능적으로 비행을 깨우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아기 새에게는 위험천만한 첫 '외출'이다. 또한, 생존과 성장을 위해 내뱉어야 할 필수적인 한걸음이다.

나 또한 아기 새처럼 위험한 외출을 경험했다. 고등학교에서의 3년과 대학교 2년을 합쳐 총 5년을 모두 기숙사에서 보냈다. 따뜻한 가족의 품을 떠나는 것이 매우 어색했지만, 굳센 자립심을 기를 수 있었고 잡념을 떨쳐버리는 자제력을 갖출 수 있었다. 이렇게 버려낸 나의 무기는 날카로웠다. 매 학기마다 학점은 상승했고, 교내 장학금을 받아 학비 걱정 없이 학업에 매진할 수 있었다. 또한,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주최했던 '차세대 보안리더 양성 프로그램' BOB에 선발되어 전문적으로 정보보호학을 공부할 수 있었다. 이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공군 정보보호병에 지원했고, 당당하게 선발되었다.

까다로웠던 서류전형과 면접을 거쳐 선발된 공군 정보보호병으로서의 경험은 나의 세 번째 외출이자 가장 가슴 떨리는 도전이다. 마치 처음 비행하는 아기 새처럼 매우 두려웠지만, 대한민국 사이버 국방의 최전선에 있다는 사명감으로 극복했다. 그렇게 정보보호에 관한 역량을 키우기 위해 노력했고, 작년 10월에는 부대 대표로 교육사에서 진행되었던 정보통신 경연대회 해킹 방어 부문에 출전했다. 내 어깨에 지워진 막중한 임무의 무게는 여전히 무겁지만, 내가 지켜야 할 소중한 사람들을 생각하면 결코 지칠 수 없다.

온실 속의 화초와 같았던 나의 외출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 시리도록 슬픈 좌절과 터질듯한 희열. 실패와 성공을 반복했다. 고등학교 시절, 정말 능력이 뛰어났던 친구들과의 격차를 실감하며 눈물 흘렸고, 컴퓨터공학을 전공하며 처음으로 완성했던 소프트웨어 프로젝트를 보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웃음을 머금었다. 이를 통해 그 어떤 것보다 단단하게 담금질 되어 이전 어떤 역경도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이 있다.

안정적인 현실을 벗어난다는 것은 분명 쉽지 않은 결정이다. 하지만, 평평한 땅에 기대있는 것에 만족했다면 우리는 결코 달의 뒷면을 볼 수 없었다. 마치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처럼 찬란한 우리의 꿈을 위해서라면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계속되는 '외출'을 통해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 당신에게 묻겠다. 당신의 가슴속에 남은 가장 뜨거운 '외출'은 언제였는가? AF

책 읽는 공군

영국 전투

- 가장 훌륭했던 항공전

세계 공군사(史)에 있어 절대 무시하고 지나갈 수 없는 전투가 있습니다. 이 전투에서는 탱크도, 전함도 없이 오직 공군력만이 투입되었지만, 그 결과로 멸망의 위기에 놓여있던 한 국가가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1940년, 유럽의 하늘을 배경으로 펼쳐진 이 전투는 '영국 전투'라고 불립니다. 영국 전투는 당시로서 가능했던 최첨단의 항공기술과 레이더기술이 사용되었던 전투이며, 인류 역사상 유래 없는 대규모 공중전이었습니다. 『영국 전투』는 당시의 상황에 대해 자세히 서술하고 있습니다.

영국 전투라는 명칭은 1940년 처칠의 연설에서 비롯됩니다. 그 해 5월, 나치 독일은 프랑스를 항복시키며 서유럽을 제패했고 오직 영국만이 독일에 맞서 외로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독일의 위협으로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하면서, 당시 영국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은 연설을 통해 프랑스에서의 전투는 끝나고 이제 '영국의 전투'가 시작되었음을 선언했습니다. 처칠은 자신이 국민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피, 땀, 그리고 눈물밖에 없지만, 영국은 끝내 승리할 것이며 먼 훗날 후손들은 이 고난의 시기를 '가장 훌륭했던 시간(Finest Hour)'으로 기억할 것이라 단언했습니다. 처칠의 말은 영국 국민들을 크게 고무시키고, 독일의 침공에 맞서 적극적인 대비태세를 구축하게 했습니다.

이때 영국 방위의 최선봉에 나섰던 것은 바로 영국 공군이었습니다. 무적의 독일 육군이 영국에 상륙한다면 멸망은 시간문제였기에, 영국 공군은 독일령 프랑스와 영국 사이 해협의 제공권을 장악해 상륙 자체를 저지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이를 위해 구시대적 복엽기들을 신형 전투기로 적극 교체하는 한편, 당시로서는 최신기술이었던 레이더 기지를 해안에 설치, 신형 방공포를 도입하는 등 철저한 방공망 확보에 힘썼습니다. 영국 국민들 역시 등화관제를 실시하고 집집마다 방독면을 구비하며, 적의 폭격 시 몸을 숨길 대피소를 마련해 놓는 등 군민이 하나 되어 항공전 대비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글
항공지원작전단 정보통신처
상병 홍석주

결국 독일군의 공습이 시작되었지만, 나라를 지키기 위해 단결된 영국군과 국민들은 훌륭하게 방어전을 치러내었습니다. 영불해협을 건너오는 독일 공군의 움직임은 해안가의 레이더에 의해 모두 탐지되었고, 영국 공군의 최선에 전투기 '스핏파이어'는 빠른 속도로 독일의 전투기들을 물리쳤습니다. 해안의 방어선을 뚫은 독일 폭격기들은 런던까지 도달했지만, 우수한 방공포의 화력과 시민들의 신속한 조치로 런던의 피해는 최소화될 수 있었습니다. 영국 전투가 불리하게 진행되면서 영불해협의 제공권을 상실하기에 이르자, 히틀러는 결국 영국 본토 침공을 단념했습니다. 공군의 활약과 국민들의 애국심이 그들의 조국을 나치의 침략으로부터 지켜낸 것입니다.

영국 전투는 현대전에서 공군의 역할과 그 중요성을 가감없이 보여준 사례이자, 조국 수호에 군민의 협동이 얼마나 결정적으로 작용하는지를 보여준 사례입니다. 우리 공군 장병들에게 영국 전투의 역사는 큰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사시 영공의 제공권을 빠르게 장악해 적의 군사작전을 방해하고, 군민의 적극적 협동으로 최상의 방공 준비태세를 갖춰 언제든 적의 침입을 격퇴해야 할 우리 공군의 목표를 1940년의 영국 공군은 거의 완벽에 가깝게 이뤄냈습니다. 책 『영국 전투』를 통해 우리 공군인들은 철저한 영공 방위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생각해보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영국 전투

마이클 코다 지음
열린책들 펴냄

프랑켄슈타인

- 외로움과 분노에 대하여

누구나 살면서 외로움을 느낍니다. 정든 사람들과 헤어져야 할 때, 나만 못하는 연애에 질투를 느낄 때 등. 이외에도 각자 다양한 이유로 사람들은 외로움을 느낍니다. 때로는 그저 남들과 잠깐 떨어져 있는 것을 넘어 섞이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을 때 외로움을 넘어 소외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가끔은 그런 상황에 화가 나고 그 화를 풀고 싶을 때가 있을 겁니다. 『프랑켄슈타인』은 바로 그 외로움, 소외감, 분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프랑켄슈타인』에 나오는 ‘괴물’은 자신의 창조주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또한 남들과는 다른 ‘창조된’ 생명이기에 ‘사람과는 다른 존재’라는 이유로 멸시를 받았으며, 보호받고 사랑받고 싶은 욕구를 충족하지 못했기에 자신의 창조주인 프랑켄슈타인에게 복수했습니다. 창조주라면 최소한 자신을 보호해주었어야, 자신을 보살펴주고 자신이 누군지 알려줬어야 하지 않았냐는 분노의 외침. ‘괴물’의 어두운 감정은 자신의 창조주 역시 같은 외로움을 느끼게 하겠다는 목적이 되고, 그렇게 이름 없는 괴물의 복수가 이루어집니다. 프랑켄슈타인은 자신이 창조한 생명에 의해 사랑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자 스스로를 자책하며 괴로워합니다. 이름 없는 괴물이 프랑켄슈타인에게 한 악행 때문에 괴물의 말은 눈에 잘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 번 천천히 책을 읽으며 괴물의 말을 하나하나 곱씹어보면 그저 분노에 가득 찬, 나와는 다른 존재의 이야기라고 하기는 힘들다는, 내 주변에 이런 감정을 느끼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괴물의 분노는 남들과 다르다는 이유로 받는 멸시와 두려움의 시선, 폭행에 쫓기며 자신을 가장 따스하게 감싸줄 무언가가 없기에 생겼습니다. 잠시나마 괴물이 자신을 보살펴줄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었던

이는 작은 오두막집에 살던 눈이 보이지 않는 나이든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괴물을 그저 경계하고 멸시할 뿐이었습니다.

남들과 달라 받는 차별, 멸시에 소외감을 느끼고 두려워하는 사람들. ‘괴물’이라는 표현을 치우고 보니 정말 소설 속 가상의 존재의 이야기일 뿐이라고 옆으로 치워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경험했을 수도, 누군가는 목격했을 수도 있었을, 우리 주변에서 매우 흔하게 발견되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책 속의 괴물이 하는 외침은 프랑켄슈타인에게만 하는 것이 아닌 우리에게 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눈에 보이는 것처럼 ‘괴물’이라는 사실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름 없는’이라는 단어에 집중해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눈에 보이는 대로가 아닌 마음을 보아달라고… AF

글

제10전투비행단 헌병대대

일병 천인혁



프랑켄슈타인

메리 셸리 지음
문학동네 펴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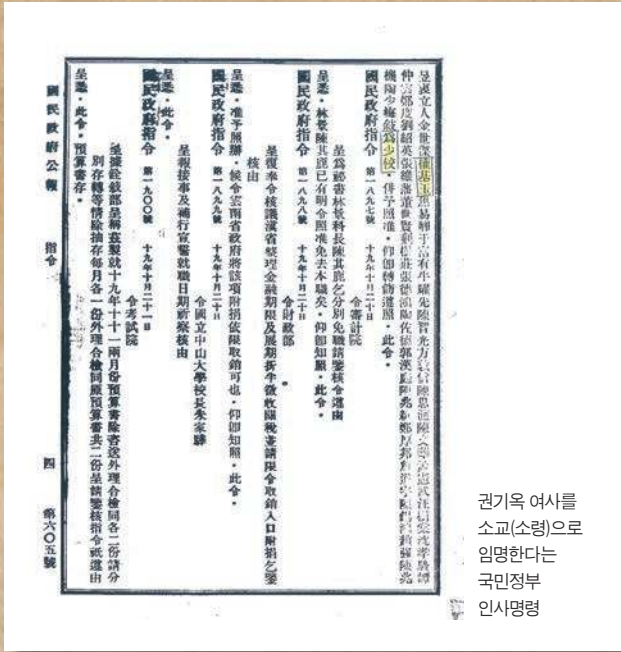
불가능에 도전해 최초로 연다! 대한민국 공군의 어머니 권기옥 여사!

권기옥 여사. 항공독립운동가 중 널리 알려진 인물이다. 권기옥 여사를 주제로 한 각종 서적들만 수십 권에 달한다.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비행사라는 상징성이 크기 때문이리라. 하지만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자.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비행사 말고 떠오르는 것이 있을까? 아마도 없을 것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단편적 지식으로는 권기옥 여사를 설명할 길이 없다. 왜냐하면 그 분은 항상 불가능에 도전한 최초의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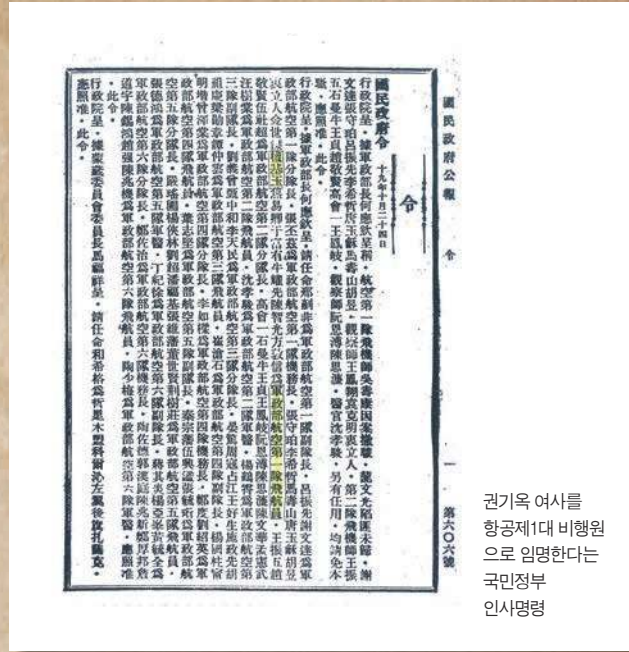
권기옥 여사는 1919년 단 한 해에만 2번의 옥고를 치른다. 평양 숭의학교 졸업반 당시 3.1운동에 참가해 3주, 또한 임시정부 공채를 판매하고 군자금을 모금하다가 체포돼 6개월 동안 옥살이를 하게 된 것.

그때 그의 나이는 18세에 불과했다. '될 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 본다'라고 했다. 2번의 옥고에도 권기옥 여사는 굴하지 않았다. 1920년에는 평양청년회 여자전도대장으로 변신한다. 전국에 흩어져 있는 애국지사들과 접선하기 위한 방편이었지만 이마저도 발각되자 상해로 망명을 떠나야 했다. 과연 빼앗긴 조국에도 광복의 봄은 찾아올 수 있을까? 권기옥 여사는 마냥 봄을 기다리지 않았다. 봄을 만들기 위해 자신이 할 일을 개척하고자 했다.





권기옥 여사를 소교(소령)으로 임명한다는 국민정부 인사명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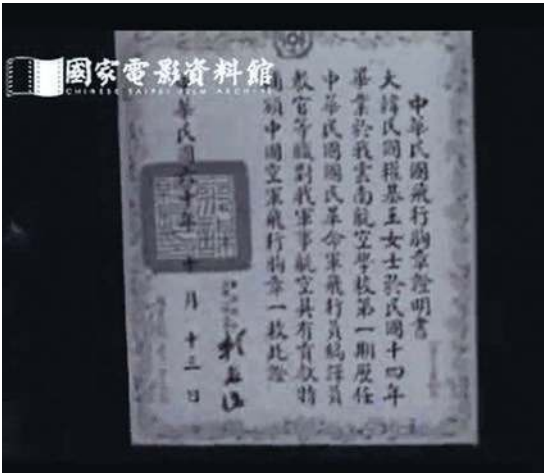
권기옥 여사를 항공제1대 비행원으로 임명한다는 국민정부 인사명령

빼앗긴 조국에도 광복은 오는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라는 시를 알 것이다. 일제 강점기 저항시인으로 이름을 떨친 이상화 시인의 작품이다. 이상화 시인의 가족은 독립운동가로 유명하다. 그의 형 이상정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의정원 의원을 지냈으며 중국군에 입대해 난징과 한커우 전투에 참전했다. 태평양 전쟁 종전 후에는 중국군 육군 중장 신분으로 복지나 방면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담당했다. 권기옥 여사의 부군이 바로 이상정 장군이다. 즉 이상화 시인은 권기옥 여사의 시동생인 것이다. 또한 이상정 장군과 권기옥 여사를 이어준 사람은 '지피지보 공군인물' 1회에 등장했던 서활보(서국일) 장군이다. '주변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라고 했다. 이 세 사람을 보면 우리가 흔히 여성비행사로만 알고 있는 권기옥 여사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말하지 않아도 짐작이 가지 않는가? 이상정 장군과 권기옥 여사에 관해 한 가지 웃지 못할 에피소드가 있다. 일본 밀정들이 이 두 사람의 관계를 '불륜'이라고 보고를 한 것이다. 정상적인 부부를 보고 불륜이냐? 밀정들이 잘 몰랐을 수 있겠지만 필자는 다르게 생각한다. 독립운동가들의 평판에 어떻게든 흠집을 내려는 목적으로 왜곡했다는 생각 말이다.

밀정을 처단하다

권기옥 여사는 밀정 때문에 말 못할 고초를 겪었다. 그 자신도 밀정으로 오해를 받기도 했고 밀정 때문에 일경에 체포되기도 했다. 일본은 집요하게 밀정과 암살자를 파견했다. 당시는 비행사가 귀하던 시절이었다. 비행사 자격을 취득하면 관련 소식이 신문에 비중 있게 보도될 정도였다. 그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남자도 아닌 여자가 독립운동을 위해서 비행사가 되겠다고 하니 일본 입장에서는 신경이 곤두서는 존재였을 거다. 권기옥 여사가 운남항공학교에서 교육 중이라는 사실을 알아낸 일본영사관은 암살자를 보냈다. 하지만 권기옥 여사는 이영무와 장지일의 도움을 받아 그 암살자를 공동묘지에서 처단했다. 이영무라는 이름이 낯설지 않을 것이다. 바로 대한민국 공군창설 7인 중 한 분이다. 자신을 죽이기 위해 찾아온 암살자를 피하지 않았던 권기옥 여사. 그랬기에 불가능해 보였던 비행사의 길도 개척할 수 있었다.



권기옥 여사가 받은 훈장증



권기옥 여사가 리명탕 중화민국 공군참모총장에게 비행훈장을 수여받는 모습

출처 : 대만화문전자서고(臺灣華文電子書庫)

운남항공학교 입학!

권기옥 여사가 비행사가 된다고 했을 때 딱 한 사람만 빼고는 불가능하다고 했을 것이다. 바로 권기옥 여사 본인만 빼고 말이다. 앞서도 말했지만 당시 비행사가 되는 길은 꼬끼리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웠었다. 그것도 남자가 아닌 여자의 몸으로 비행사가 되겠다? 권기옥 여사는 중국에서 비행사를 양성하던 보정항공학교와 남원항공학교 등에 지원했지만 여자라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하지만 포기할 권기옥이 아니었다. 중국 운남성에 있는 운남항공학교에 찾아갈 결심을 한 것. 비적들이 들끓는 중국 대륙을 여행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큰 모험이었다. 권기

옥 여사는 이시영 선생의 추천서를 가지고 운남성 성장인 당계요¹⁾를 찾아갔다. 당계요는 대한민국 임시 정부에 호의적인 사람이었다. 당계요를 만나 조국 독립을 위해 비행사가 되겠다고 당당하게 말하는 권기옥. 당계요는 20대 초반의 앳된 여성이 아닌 전사(戰士)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당계요의 마음을 움직여 운남항공학교에 입학한 권기옥. 하지만 권기옥의 마음을 움직인 건 항상 조국이였다.

1) 대한민국 독립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민국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받기도 했다.

끝없는 도전과 최초의 삶!

비행사의 꿈을 이루어낸 권기옥 여사. 이제 그에게 필요한 건 비행기였다. 하지만 비행기를 마련할 재정이 문제였다. 때마침 국민정부가 북벌전쟁을 시작한다는 소식에 광동에 머물면서 비행대 창설을 기다렸지만 당시 국민정부는 그럴 여력이 없었다. 대신 조선인 비행사 서왈보의 소식을 듣고 풍옥상 군벌 항공대에 합류했다. 이후 국민정부가 공군을 창설하자 국민정부 비행사로 활동하며 절치부심하던 그에게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다. 1935년 장제스 총통의 부인이었던 송미령이 권기옥 여사에게 선전비행을 제안한 것이다. 중국공군 입대를 독려하기 위해서였다. 선전비행은 북경에서 동남아시아를 경유해 일본까지 날아가는 일정으로 계획됐다. 아쉽게도 선전비행은 출발 당일 정국 불안으로 무산되고 말았다.

이후에도 권기옥 여사는 계속해서 또 다른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최용덕 장군과 함께 대한민국 임시정부 공군설계위원회에 참가했고 해방된 조국에서는 대한민국 공군 창설에 힘을 보탰다. 대한민국 최초 여성비행사 뿐 아니라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출판인으로 한국연감을 발간하기도 했다. 그에게 최초라는 수식어는 자신의 영광을 빛내기 위한 수단이 아니었다. 오직 조국 독립과 독립한 조국의 번영에 힘을 보태기 위한 도구였을 뿐이다. 권기옥 여사는 전 재산을 장학 사업을 위해 기부하고 서울 장충동 191-4번지의 낡은 목조 건물에서 여생을 마감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권기옥 여사의 공로를 인정해 대통령 표창과 대한민국 건국훈장 독립장을 수여했다. 얼마 전 서울시는 그랜드 앰배서더 서울호텔 앞 버스정류장 이름을 '장충문화체육센터·권기옥 활동터'라고 명명했다. 혹시나 그 근처를 지나가는 공군인이 있다면 권기옥 여사의 활동상을 꼭 한 번 떠올려보도록 하자. 기억하는 것이 후손의 의무라는 것 잊지 말자. **AF**

권기옥 여사 약력

- 1901년 평양출생
- 1919년 - 평양 송의학교 졸업반으로 3.1운동 참가 3주간 구류
- 임시정부 공채 판매 및 군자금 모금 등으로 일경 체포 (6개월 옥살이)
- 1920년 - 평양청년회 여자전도단 조직 및 여자전도대장
※ 전국 순회 강연 및 전국에 흩어져 있는 애국동지들과 접선하기 위한 방편
- 상해 망명
- 1923년 운남항공학교 1기생 입학(동기생 이영무)
- 1925년 운남항공학교 졸업
- 1927년 총사령부 항공처 항공제2대 비행원
※ 장제스 총통 북벌시 최용덕 장군과 함께 국민혁명군 동로항공사령부 참가
- 1928년 남경에서 일경에 체포 옥살이
- 1929년 - 항공서 임시편집위원회 편집위원
- 항공사령부 항공제2대 비행원
- 항공서 항공제1대 상위관찰사
- 1930년 공군소교 진급
- 1933년 군정부 항공제1대 비행원 / 항공서 교육처 편과원
- 1934년 항공위원회 제3차 제8과 과원
- 1937년 중일전쟁 발발 후 국민정부 육군참모학교 교관(적 전술학 교관)
- 1943년 대한민국임시정부 공군설계위원
- 1949년 환국
- 1971년 중화민국 퇴명탕 공군참모총장 접견 후 공군비행훈장 수여 받음
- 1977년 건국훈장 독립장 수훈
- 1988년 소천/현충원 안장



우주의 이해



UNDERSTANDING THE SPACE

인류가 쏘아올린 별, 인공위성

예로부터 인류는 비행과, 저 멀리 우주로의 항해를 열망하였다. 그 열망의 덕분에 지구주위 우주공간을 비행하는 인위적인 천체, 인공위성은 상당한 발전을 이루었다. 이번 시간에는 인공위성의 운동원리, 궤도, 그리고 재방문주기에 대해 알아보자.

인류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호

인류의 우주개발 도전의 시작을 뜻하는 첫 번째 인공위성은 1957년 10월 4일 발사된 구소련의 '스푸트니크 1호'이다. 직경 58cm, 무게는 87kg이고 4개의 안테나를 달고 있었다. 96분에 한 번씩 타원궤도를 그리며 지구를 공전했다. 그리고 발사한지 3달 만에 지구 대기권으로 들어와 산화하며 수명을 마무리했다. 인류 최초의 위성이 발사된 이후 인류는 현재까지 약 8,000여 기의 인공위성을 발사했다.



〈스푸트니크호〉, 출처 : ESA(유럽항공우주국)

인공위성의 비행원리

만약 공기 저항이 없는 산에서 공을 수평으로 던졌다고 생각해 보자. 느린 속도로 공을 던지면 중력에 의해 금세 땅으로 떨어지지만, 속도를 점점 증가시키면 공의 비행 거리는 늘어나다가 '제1차 우주비행속도'라 불리는 7.9km/s의 속도를 넘으면 공은 지상에 떨어지지 않고 지구 주위를 회전하게 된다. 공기의 저항이 없는 상태가 계속 되면, 그 공은 영원히 지구 주위를 돌게 된다. 고도 약 100~150km로 올라가면 대기가 거의 존재하지 않아 공기의 저항이 사라지는데, 인공위성을 이 고도 이상에서 운용하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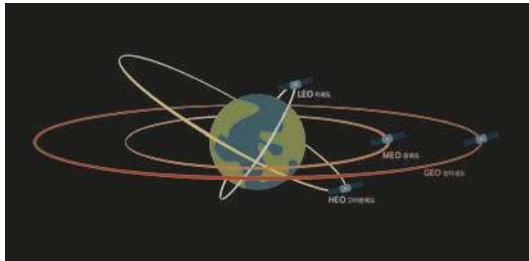
〈우주를 향한 인공위성 발사〉, 출처 : NASA(미항공우주국)





인공위성 궤도 분류

위성은 목적이나 기능에 따라 다양한 궤도로 발사된다. 위성이 비행하는 궤도는 고도에 따라 150~1,500km 사이의 저궤도(Low Earth Orbit; LEO), 1,500~35,800km 사이의 중궤도(Medium Earth Orbit; MEO), 그리고 35,786km의 정지궤도(Geostationary Earth Orbit; GEO)로 분류된다. 이외에 고타원궤도(Highly Elliptical Orbit; HEO)라 불리는 특수한 궤도가 있는데, 이는 근지점 500km, 원지점 50,000km를 지나는 타원궤도로 특정한 지역의 상공에 오랜 시간 머물러 있을 수 있어 정지궤도와 비슷한 효과를 가진다.



고도에 따른 위성의 궤도

고도에 따라 달라지는 속도

고도가 높아질수록 중력의 영향이 감소하므로, 인공위성이 궤도를 유지하기 위한 속도는 낮아지게 된다. 속도가 너무 높으면 중력보다 원심력이 강해져서 궤도를 이탈하기 때문이다. 고도 100km 이하에서의 위성속도는 7.9km/s이고, 고도 500km의 저궤도에서는 약 7.6km/s, 정지궤도인 35,786km에서는 3.075km/s면 궤도유지가 가능하다. 정지궤도에서의 위성이 3.075km/s로 공전할 때의 회전주기는 23시간 56분 4초로, 지구궤도를 한 바퀴 비행하는데 약 하루가 걸리게 되어 지상에서 보면 마치 정지(停止)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하여 정지궤도라 부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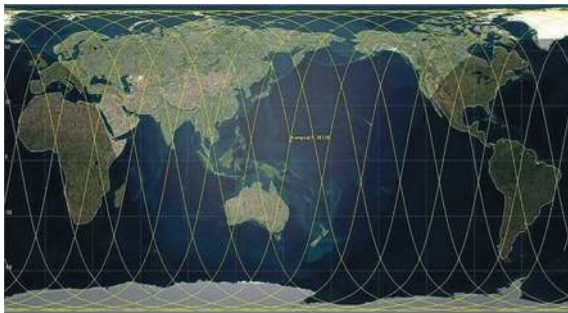


고도 (km)	속도 (km/s)	회전 주기 (시간)
① 100	7.906	1:24
200	7.778	1:28
② 500	7.612	1:38
1,000	7.350	1:45
5,000	5.918	3:21
10,000	4.934	5:47
③ 35,786	3.075	23:56

고도에 따른 인공위성의 속도

인공위성의 재방문 주기

인공위성이 지구를 한 바퀴 도는 시간을 '공전주기'라 한다. 그리고 '재방문주기'란 인공위성이 지상의 동일한 지점 상공을 다시 방문하는 시간의 간격을 말한다. 위성이 지구를 도는 동안 지구도 자전하기 때문에, 위성이 지구를 한 바퀴를 돈다고 해서 같은 지점을 지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인공위성의 공전주기와 재방문 주기는 다른 것이며, 지구를 한 바퀴 돌고나면 같은 위도상 동서로 멀리 떨어진 곳을 지나게 된다. 아래 궤적은 아리랑 3호의 하루 동안의 궤적을 나타낸 것이다. 위성이 지구의 주위를 공전하지만 실제로 지구를 평면으로 펼쳐보면 사진과 같이 누운 S자 곡선을 그리게 된다. 아리랑 3호는 하루에 지구를 14.6번 공전하며, 재방문 주기는 약 3일이다. AF



인공위성의 궤적



아리랑 3호, 출처 : 항공우주연구원

<우주소식> 인트라넷 홈페이지 안내

최신 우주자료를 인트라넷에 소개하고 있으니 공군 장병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접속방법 : 공군본부 인트라넷 홈페이지 - 하단 '전체메뉴 열기' - 우측 하단 '우주소식' 접속

* 인트라넷에서는 접속이 불가합니다.





생활 타이포그래피

시각적 무게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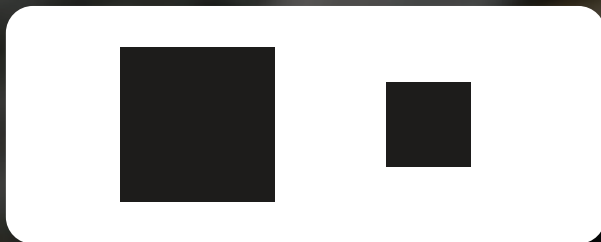
평면 공간의 시각요소들은 모두 각자의 무게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시각요소들의 무게감은 목적에 맞을 때 편안해집니다. 포스터를 예로 들면, 제목 글씨가 제일 크고 다른 내용은 그보다 작습니다. 그래야 각각의 정보가 목적에 알맞은 무게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각 시각요소를 디자인 할 때 신경써야 하는 무게감을 '시각적 무게감'이라고 부릅니다. 시각적 무게감이 강할수록 시선을 강하게 끌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일수록 더 큰 시각적 무게감을 부여해야 합니다.

시각적 무게감이 형성되는 요인은 다양합니다. 대표적인 것은 상대적인 크기의 차이, 상대적인 명도의 차이, 색의 차이 등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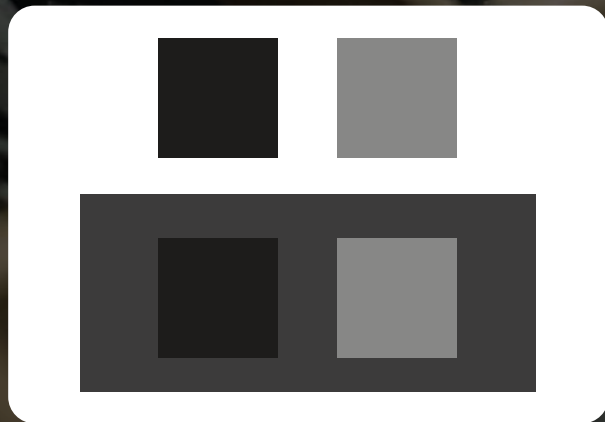
이번 글에서는 '시각적 무게감'이 형성되는 조건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크기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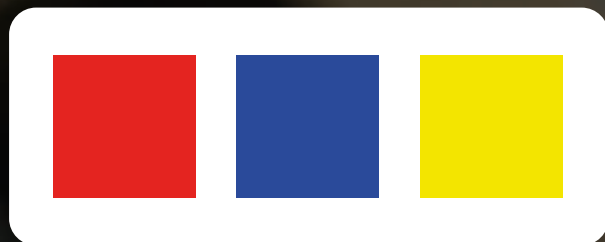
크기대비는 시각적 무게감 형성의 주된 요인입니다. 큰 물체는 작은 물체보다 더 큰 무게감을 느껴지게 합니다. 같은 이치로 큰 글자는 작은 글자보다 더 무게감 있게 느껴집니다.

2. 명도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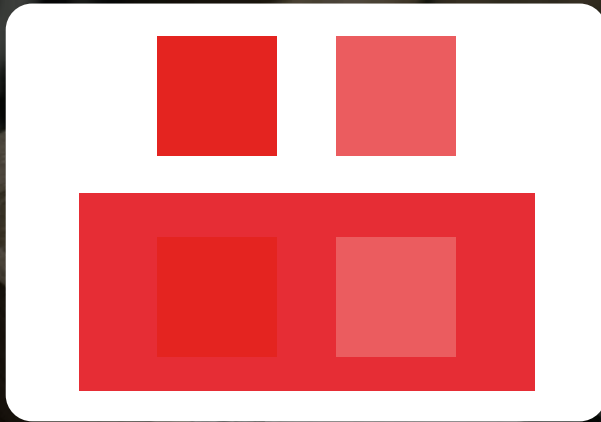
명도란 밝음의 정도입니다. 명도대비는 배경과 물체 사이의 명도차를 말합니다. 두 물체의 크기가 같은 경우, 배경과의 명도 차이가 심한 물체는 차이가 적은 물체보다 더 큰 무게감을 가지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같은 이치로 흰 바탕 위의 검정 글자가 흰 바탕 위의 회색 글자보다 더 무게감 있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반대로 검은 바탕 위에서는 검정 글자보다 회색 글자가 더 무게감 있게 느껴집니다.

3. 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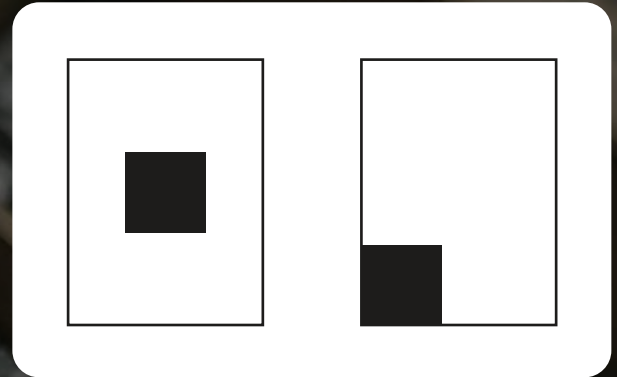
흰 바탕 위의 빨간색은 모든 색중에서 가장 큰 무게감을 줍니다. 노란색은 모든 색중에서 가장 작은 무게감을 줍니다.

4.채도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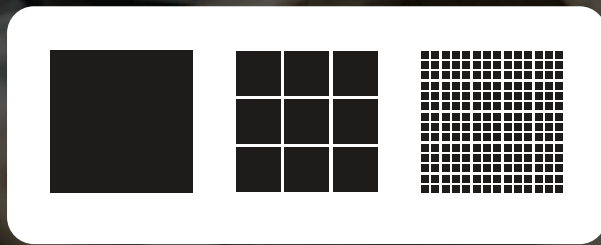
채도는 색의 선명함입니다. 채도 대비란 배경과 물체 사이의 채도차를 말합니다. 두 물체의 크기가 같을 때, 배경과의 채도 차이가 심한 물체는 차이가 적은 물체보다 더 큰 무게감을 느껴지게 합니다.

7.여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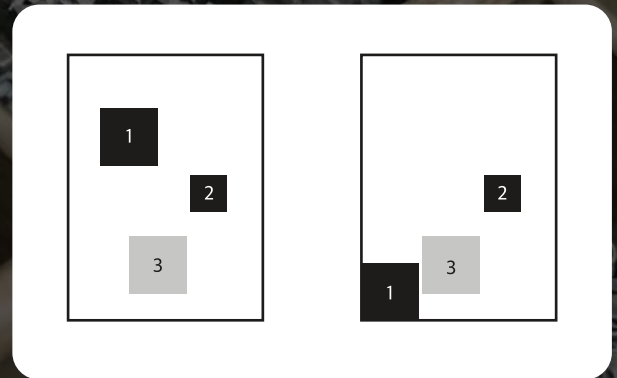
충분히 여백을 준 물체는 여백이 없는 물체보다 더 큰 무게감이 느껴집니다. 따라서, 제목의 폰트 크기가 크더라도 너무 구석에 위치하게 되면 눈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5.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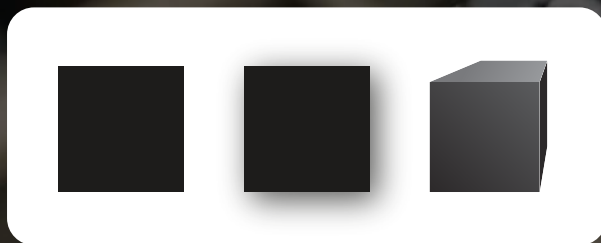
같은 면적 대비 밀도가 높은 물체는 낮은 물체보다 더 큰 무게감을 가지고 있다고 느낍니다.

8.종합




왼쪽 그림의 경우 1번 사각형과 3번 사각형의 크기는 같지만 1번의 명도대비가 더 높고 1번 사각형이 2번 사각형보다 크기가 커서, 1번 사각형의 시각적 무게감이 제일 크며 가장 주인공답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오른쪽 그림의 경우, 1번 사각형의 여백이 없어지자 누가 주인공인지 모호해졌습니다.

6.차원



입체적인 물체는 평면적인 물체보다 더 큰 무게감을 느껴지게 합니다. 같은 이치로 글자에 그림자나 3차원 효과를 준 글자는 더 무게감 있게 느껴집니다.

시각적 무게감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주인공과 조연을 시각적으로 구분해주기 위함입니다. 정보를 위계에 따라 구성할 때 시각적으로 옳게 처리했는지 고민이 된다면, 각 시각요소가 중요도에 걸맞은 시각적 무게감을 가지고 있는지 찬찬히 고민해보기 바랍니다. 한결 수월해질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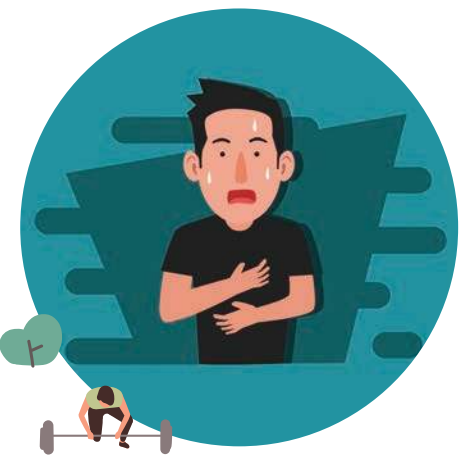
공군인의 마음건강

불안장애

한 간부가 상담을 요청을 했다. 6개월 전 스트레칭을 하던 중 갑자기 숨이 막히고, 진땀이 나고, 손발에 경련이 일어나고, 눈앞이 깜깜해지면서 이리다 죽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엄습하더니 얼마간 시간이 지나자 언제 그랬냐는 듯 괜찮아졌다는 것이다. 며칠 후 건강검진을 받았지만 몸에는 질병이 없고 스트레스 관리 잘하며 좀 쉬라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후 운전, 회의, 집에서 TV 시청 중에 이런 경험을 하게 되었고, 이리다 죽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더해지면서 부대생활을 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그의 마지막 질문은 “제가 왜 이런가요?”였다. 왜 그런 것일까? 인간은 누구나 크고 작은 불안의 감정을 느끼며 살아간다. 중요한 시험을 치르기 전, 발표를 앞두고, 번지점프대 앞에서, 뱀을 보면 긴장하고 불쾌한 감정을 느끼는 등 불안한 감정을 종종 갖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불안한 감정은 시험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고, 번지점프 이후 무엇인지 모를 상쾌함으로 변하고, 뱀을 보고 빠르게 피하게 해주고, 실수와 위기를 모면하게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불안을 갖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며, 적응적인 심리반응으로서 「정상적인 불안(normal anxiety)」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지속적이고, 공포감 등과 같은 불안의 감정이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지배하고 있다면 「병적인 불안(pathological anxiety)」이라고 할 수 있다. 병적인 불안은 다음과 같이 특징을 가진다.



첫째, 현실적인 위협이 없는 상황이나 대상에 대해서 불안을 느끼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광장공포증, 폐쇄공포증이 있다. 둘째, 현실적인 위협의 정도에 비하여 과도하게 불안을 느끼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사회공포증이 있다. 셋째, 불안을 느끼게 한 위협적인 요인이 사라졌는데도 불안이 과도하게 지속되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있다. 불안장애는 주관적으로 경험되는 불쾌한 정서인 불안과 공포가 명백히 존재하는 정신장애를 말한다.



몸을 다치면 응급처치를 하듯이 재난을 경험한 사람의 심리에도 응급처치가 필요하다.





불안장애의 일반적인 증상 >>



불면증(잠을 잘 자지 못하고, 잠이 들기도 힘들다)
근육의 경직과 긴장
예민함, 잘 놀라는 증상, 사소한 일에도 지나치게 염려한다.
집중을 할 수 없으며, 마음이 항상 불안한 생각으로 차 있다. 초초하다.
쉽게 피로해진다.
안절부절못하고 벼랑에 선 듯한 느낌이 든다.
이마 찌푸림(자신도 모르게 얼굴이 찌푸려진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발이 저리거나 입이 마른다.
얼굴이나 가슴이 화끈거린다.
심장박동이 빨라진다.
소변을 자주 보거나 아랫배가 불편하고 설사를 한다.
목에 무엇인가 걸린 것 같은 이물감을 느끼고 호흡이 빠르다.



DSM-5¹⁾에 따르면, 불안장애는 “극도의 공포, 불안 및 관련된 행동 장애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 종류로는 어린 아이에게 나타나며 일부 성인에게도 나타나는 「분리불안 장애」, 말을 할 수 있음에도 특정 사회적 상황에서 말을 안 하는 「선택적 함구증」, 특정한 대상이나 상황에 대해서 극심한 공포심을 느끼는 「특정 공포증(동물형, 자연환경형, 혈액·주사·손상형, 상황형)」, 사람들이 자신을 주목한다고 느끼면 불안을 느끼는 「사회불안장애(사회공포증)」, 공황발작(Panic attack)을 경험한 이후 걱정과 행동의 부적응이 나타나는 「공황장애」, 대중교통이나 열린공간에 있는 것에 공포와 불안을 느끼는 「광장공포증」, 수많은 일상생활을 지나치게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범불안장애」가 있다. (글 시작에 다룬 사례는 공황장애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불안장애를 치료하는 방법은 정신과의 약물치료가 대표적이다. 병적인 불안이 자율신경계의 균형이나 뇌신경전달물질의 이상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약물치료를 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부정적인 생각의 원인을 찾고, 자신의 강점과 자원들을 통해서 왜곡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합리적이고 긍정적인 생각을 갖도록 하는 ‘인지치료방법’, 불안을 일으키는 사건들을 위계에 맞추어 나누어 놓고 불안을 유발하는 수준이 낮은 사건에서부터 높은 수준의 사건으로 점진적으로 짧은 시간 동안 노출하는 단계적·점진적 치료방법인 ‘체계적 둔감법’이 있다. 또한 선택적 함구증 치료에 많이 이용되는 자기모델링 4단계기법, 특정공포증을 치유하기 위해 실제 불안을 유발하는 상황에 직접 부딪치면서 연습하는 노출훈련, 혐오자극법 등의 방법도 있다.

모든 사람은 살아가면서 약간의 불안을 가지게 된다. 그러므로 이를 잘 관리 하는 것이 필요하다. 평소 정신건강의 긴장을 풀어 줄 수 있는 이완 기술은 매우 효과적이다. 발끝에서 얼굴까지 점진적으로 신체적 긴장을 푸는 방법이나, 단전호흡과정을 하며 집중하는 훈련, 몸과 마음의 긴장을 풀어주는 훈련, 명상, 요가 등은 치료가 아니더라도 일상생활에서 불안을 통제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 마찬가지로 가벼운 운동도 이완효과가 좋으니 평소 스트레칭과 가벼운 산책 등을 주기적으로 하여 주는 것이 좋다. 불안장애의 경우 초기에 적극적인 약물치료와 심리상담을 병행할 경우 매우 효과적으로 치료 가능하다. 혼자서 고민하지 말고 주변의 전문의료기관이나 상담전문가를 찾아 문의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응방법이라 하겠다. **AF**



1) 정신 장애 진단 및 통계 편람(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정신장애 진단 분류 체계.



첫 독자의 편집후기



『떨지 않고 할 말 다하는 법』

최현정 지음

라운북 펴냄 | 267쪽 | 14,500원

떨지 않고 하고 싶은 말을 잘하는 법... 한 가지만 기억하라!

“돌이켜 생각해보면 나는 고난이 많았기 때문에 도리어 다른 사람들보다 두 배, 세 배로 성장할 수 있었다. 사람의 발전은 부족한 것을 깨닫고 개선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할 때, 혹은 자신의 실수를 부끄러워할 때 진정으로 발휘된다. 따라서 못하거나 실수를 했다는 것은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누군가 대한민국 1호 전문 프리젠테이션자 아나운서, 교수, MC, 강사 등의 타이틀을 가졌다면 “그쪽에 재능이 있었나 보네”라는 반응이 나올 법하다. 그러나 그저 하고 싶다는 이유로 아나운서 공부를 시작했지만, 아나운서로서의 소양은 부족했던 저자 최현정에게 있어서 꿈을 향한 도전은 고난의 연속이었다.



학창시절, 지방에 있는 대학교의 안경광학과에 진학하라는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진학한 수도권 지역의 언론정보학과에서 아나운서 출신의 교수님은 저자에게 “목소리가 너무 떨리고 톤이 불안정해. 게다가 사투리도 심하군. 이 정도 사투리는 고치기도 힘들 텐데... 사투리를 고치지 않으면 지역 아나운서에 채용되기도 힘들 거야.”라는 지적을 남겼다.

큰 충격에 포기하고도 싶었지만, 저자에게 아나운서는 절실한 꿈이었다. 창피함에 지레 포기하지 않고 저자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성능 좋은 녹음기를 사서 늘 목에 걸고 다니며 하루 동안 자신이 하는 말을 모두 녹음해 분석했다. 그 결과 저자는 표준어와 사투리의 아주 작은 차이점까지도 파악할 수 있었고, 8년의 노력 끝에 자신의 모든 사투리를 고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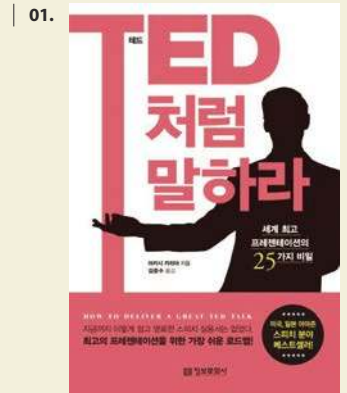
직장을 갖고 나서도 순탄치 않은 일상들이 이어졌다. 아나운서로서 처음 투입됐던 방송에서 담당 PD는 저자에게 “촬영 접자”는 말과 함께 녹화 영상 속을 보여주며 저자의 어색한 표정과 목소리 톤, 뻗뻗한 제스처를 짚어주며 “아나운서도 연기가 필요한데 연기력이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한 저자는 아나운서로 활동하던 시기에 어느 대기업으로부터 제안 받았던 32억짜리 프레젠테이션도 시원하게 말아먹은 적이 있다. 단점을 하나라도 잡아내기 위해 매의 눈으로 저자를 지켜보는 심사위원들 앞에서 저자는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는 ‘블랙아웃’ 현상을 겪은 탓이다. 이후 스피치 강사로 활동할 때 대학교에서 진행한 강의에서도 100여 명의 학생 앞에서 횡설수설하는 대실패를 경험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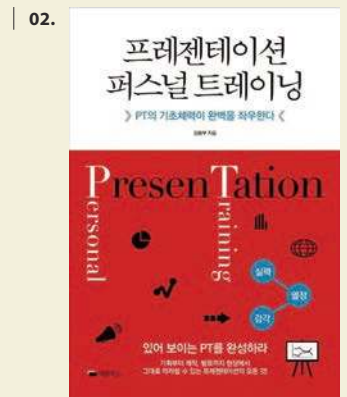
그럼에도 저자는 엄청난 부끄러움을 이겨내며 부단히 재도전했다. 하루 여덟 시간씩 아나운서 아카데미에서 표정과 대본 연습을 했고, 주말에도 회사에 출근해 프레젠테이션 관련 책을 읽으며 공부했다. 강의를 하기 전에는 장소를 대여해서 수업이 많은 시간 연습에 몰두했다. 그 결과 같이 작업했던 한 PD에게서는 “같이 일했던 아나운서 중 베스트 3”라는 말을 듣기도 하고, 대기업 프리젠티어로써 업계 최고 대우를 받고 있으며, 이외에도 스피치, 프레젠테이션, 보이스 컨설팅 등 저자가 진행하는 강의의 만족도는 업계 최고라는 평을 듣는 위치에 서게 됐다.

이쯤 되면 다른 사람은 으레 포기했을 상황에서 끊임없이 도전할 수 있는 저자의 비결이 궁금해진다. 저자는 “말을 잘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은 발표에 대한 전문 지식이 아니다. 화법도 아니고, 이미지나 제스처 같은 발표 연출법도 아니다”라며 “내가 생각하는 첫 번째 조건은 바로 ‘용기’다. 이 책에서 내가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도 용기 있는 삶이 중요하다는 철칙이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용기, 즉 발표 공포증이 생겼을지라도 발표 자리에 다시 서는 용기가 전제돼야 한다. 화법이나 손동작 같은 연출은 그 뒤에 적용하면 된다.”고 말한다.

『떨지 않고 할 말 다하는 법』을 펼친 독자들 중 대다수가 원한 건 발표하는 세련된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였을지도 모른다. 물론 저자는 책을 통해 여러 장에 걸쳐 말 잘하는 ‘기술’들도 설명한다. 하지만 더 많은 부분에서 저자의 ‘실패담’과 그것을 극복한 경험, 그리고 용기에 대해 강조한다. 어쩌면 이 책을 읽고 나서 챙겨야 할 한 가지 가치는 ‘용기’로, 이러한 ‘용기’를 얻었다면 이 책을 다 읽은 것이나 마찬가지일지도 모르겠다. **AF**



『TED처럼 말하라』
아카시 카리아 지음
김준수 옮김 | 정보문화사 펴냄 | 210쪽 | 12,000원



『프레젠테이션 퍼스널 트레이닝』
김용무 지음
대림북스 펴냄 | 246쪽 | 13,000원

01. 저명한 강연가이자 커뮤니케이션 강사인 아카시 카리아가 프레젠테이션과 스피치를 가장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완벽한 강연 시스템을 소개한 책이다. 최고 인기 강연 200개를 연구하여, TED의 핵심만을 짚어냈다. 반복 가능한 파워 프레이즈를 만드는 법부터 강력한 프레젠테이션을 위한 ABC-C구조, 스피치의 격을 높이는 수사적 도구들, 주의를 사로잡는 오프닝 기술, 주의를 끄는 통계 사용법 등 프레젠테이션을 위한 쉬운 로드맵을 제시한다.

02. 기업교육 전문가로, 다양한 국내 유수 기업과 공공기관에서 수많은 프레젠테이션 강의를 해온 김용무 소장이 프레젠테이션의 기획과 제작, 발표까지 현장에서 그대로 따라할 수 있는 핵심 전략과 기술을 소개한 책이다. 저자는 프레젠테이션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프레젠테이션의 기본기를 다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한다.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PT, 스티브 잡스 PT, 오바마의 연설과 같은 다양한 프레젠테이션의 사례를 보여주며 성공적인 PT에 한 걸음 가까워지는 방법을 제시한다.

철학, 군인정신을 말하다

그대는 존경받을만한 전사인가?

- '칼의 신' 미야모토 무사시가 말하는 무예의 길

『오륜서』



글·사진

안광복

(중동고 철학교사,

철학박사)

그대는 존경받을만한 전사인가? - '칼의 신' 미야모토 무사시가 말하는 무예의 길 『오륜서』

“칼의 신, 미야모토 무사시”

미야모토 무사시(宮本武藏, 1584~1645)는 최고의 승부사였다. 그는 60여 차례에 이르는 겨루기에서 단 한 번도 지지 않았다. 열세 살에 이미 유명한 도장사범을 꺼꾸러뜨려 유명세를 얻은 미야모토 무사시는 끊임없이 무림의 고수들을 무릎 꿇렸다. 마침내 그는 한 손에는 큰 칼을, 다른 한 손에는 작은 칼을 들고 싸우는 이텐이치류(二天一流)라는 검법을 열었다. 하지만 서른 살에 이르자 미야모토 무

사시는 더 이상 누구와도 무술을 겨루지 않았다. 예순 두 살에 죽음을 맞을 때까지 그는 그림과 공예에 힘을 쏟으며 마음을 다



스렸다. 그리고 말년에 이르러 자신의 무도(武道)를 정리한 오륜서(五輪書)를 남겼다. 『손자병법』과 더불어 ‘동양의 2대 병법서’로 꼽히는 이 책은 미야모토 무사시에게 ‘칼의 신(劍神)’이라는 명성을 안겼다.

『오륜서』는 지수화풍공(地水火風空)이라는 불교의 다섯 원리(五輪)를 따라 쓰인 책이다(그래서 각 장의 제목이 ‘땅의 책’, ‘물의 책’, ‘불의 책’, ‘바람의 책’, ‘허공의 책’이다). 하지만 미야모토 무사시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그는 냉혹한 승부사였기에 싸움의 목적은 “이기는 것”에 있다고 분명하게 선을 긋는다. 아무리 멋있고 정교해도 승리하지 못하는 이론은 아무 쓸모없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미야모토 무사시가 주장하는 ‘이기는 법’은 무엇일까?

“내 병법에서는 몸과 마음을 똑바로 하여, 적의 균형을 무너뜨려서 적이 평정심을 잃은 순간을 중요하게 여긴다.”

그는 자기 검법의 핵심을 이 한 마디로 간단하게 정리한다. 무엇보다도 ‘마음의 평정이 가장 중요하다. 조급하거나 위기 감에 휩싸이면 상대의 속임수에 말려들기 쉬운 탓이다. 무사라면 당연히 언제, 어떤 상황에서건 “마음을 한 가운데 두어야 한다.” 적이 내 마음을 흔들어 놓아도 절대로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다. 어떻게 해야 이런 경지에 이를까? 미야모토 무사시의 답변은 대단히 상식적이다. “평상시에는 전투할 때처럼 몸을 쓰고, 전투 상황에서는 평상시처럼 몸을 움직여라.” 실전 같은 훈련을 꾸준히 거듭하라는 의미로 들린다.

“자세를 잡으나 자세가 없다.”

나이가 미야모토 무사시는 ‘박자’의 중요함을 거듭 강조한다. 전투에서는 주도권이 중요하다. 나의 박자에 따라 상대가 움직이도록 해야지, 적의 리듬에 내가 말려들었다간 낭패를 보게 된다. 상대방은 당연히 나의 박자를 예상하고 거기에 맞추어 방어를 하려 한다. 때문에 상대의 예측을 빚나

◀ 미야모토 무사시는 소설, 드라마, 만화 등의 다양한 미디어에서 ‘전설적인 검객’으로 다뤄지고 있다.

가게 하고 호흡을 흐뜨려 놓아야 한다. 『오륜서』에 리듬과 박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대목이 대단히 많은 이유다.

“상대의 박자에 끌려가지 않도록 자신의 리듬을 정확히 하는 것이 병법의 이치다. 특히, 상대의 박자가 깨지도록 속이는 박자를 알아야 한다. 적들이 생각하지 못할 리듬, 즉 형태가 없는 지체로운 빈(空) 박자를 활용해야 한다.”

“적의 박자를 흐뜨린 후 그대로 승리를 거머쥐어야 한다.”

미야모토 무사시는 적의 리듬을 깨기 위해 얼굴과 가슴 등, 상대의 급소를 치고 들어가라고 충고한다. 피하기 위해 적이 몸을 뒤로 젖히게 되는 순간, “승리는 이미 따놓은 것이다.” 하지만 실전에서 이렇듯 과감하게 공격하기란 쉽지 않다. 이런 대담함은 어떻게 기를 수 있을까? 여기서도 미야모토 무사시는 단련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천 일 동안 연습하는 것을 단(鍛)이라 하고, 일 만 일 동안의 훈련을 연(鍊)이라 한다. 단련이란 이렇듯 수도 없이 거듭 훈련하는 모습을 일컫는다.

끝없이 수련을 하면서도 형식에 집착해서는 절대 안 된다. 미야모토 무사시는 자신의 검법에는 “자세를 잡으나 자세가 없다.”고 힘주어 말한다. 태권도 폼새를 떠올려 보라. 수련 과정에서는 폼새의 여러 동작을 끊임없이 익히지만, 실전에서 폼새대로 싸우는 경우는 거의 없다. 미야모토 무사시의 검법도 다르지 않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비록 (나의 검법을) 다섯 가지로 나누었지만 모두 사람을 베기 위한 자세일 뿐이다.” 실전에서는 연습 때 쌓은 기량들이 무의식 수준으로 자연스레 흘러나올 정도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겠다.

“무예란 도를 닦는 일이다.”

그러나 그의 가르침은 검술을 열심히 갈고 닦아야 한다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 그에게 있어 무예 수련은 ‘도(道)를 닦는 일이다. 무예란 세상의 이치를 깨닫는 여러 길 중 하나일 뿐이다. 농부에게는 농부의 도가, 상인에게에는 상인의 도

가, 기술자(工)

에게는 기술자의 도가

있다. 어떤 분야에서건 최고의

경지에 다다른 이들에게는 인격의 깊

이와 삶의 품격이 느껴진다. 미야모토 무사

시에게는 칼을 쓰는 기술도 다르지 않았다. 우리가

검을 다루는 기술을 검술이라 하지 않고 검의 길, 즉 검도(劍道)라고 하는 까닭도 여기에 있겠다.

미야모토 무사시의 가르침은 결국 기술(術)을 닦아 마음(心)을 다스리라는 소리로 요약할 수 있겠다. 진정한 전사란 바위같이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갖춘 자이다. 나아가 세상의 리듬을 깨우쳐, 무엇에도 흐트러지지 않는 자신만의 박자로 삶을 해쳐나가는 사람이다. 미야모토 무사시는 진정한 전사의 모습을 이렇게 정리한다.

“무사는 날마다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정신과 기력을 갈고 닦았기에 한 점 구름도 없는 맑은 정신 상태를 유지한다. 이런 경지에 이르러야 공(空)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

전사인 그대는 술한 훈련을 통해 맑은 인격과 굳건한 정신을 만들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단지 기계적으로 동작을 반복하고 있을 뿐인가? 싸움 기술만 뛰어난 무인은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존경받지는 못한다. 그대는 과연 우리를 받을만한 인격을 닦은 전사인지 스스로 되물어 볼 일이다. AF



생각하는 그림 ●●●●●●●●●●

137점 만점에 96점

한 교수가 성적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시험문제를 매우 어렵게 냈습니다. 최고 수준의 학생만 풀 수 있는 문제들을 시험에 포함시킨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폭넓은 분포의 시험 점수가 나왔으며 교수는 만족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학생들의 총 평균 점수가 100점 만점에 72점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적은 상대평가였기 때문에 시험 평균 점수는 최종 성적에 크게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학생들의 원성이 높아지자 학생들의 불만을 무시할 수도, 그렇다고 시험을 무작정 쉽게 낼 수도 없는 교수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오랜 고민 끝에 교수는 한 가지 묘안을 냈습니다. 다음 시험에서 만점을 100점이 아닌 137점으로 높인 것입니다. 그러자 평균 점수가 96점으로 나왔습니다. 실제로는 이전 시험보다 더 어렵게 문제를 냈기에 정답률은 기존의 72퍼센트보다도 낮았지만, 학생들은 점수에 만족했습니다. 이번에도 평균 점수가 높은 것이 성적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지만 말이죠.

교수의 속임수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100점 이상의 점수를 받는 학생들이 나오면 열광적인 반응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것이고, 둘째는 만점이 137점이라는 애매한 수라서 학생들은 자신의 점수가 실제로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흔히 인간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라고 여겨집니다. 경제학자들은 현대사회의 인간을 호모 이코노미쿠스(Homo Economicus)로 분류하기도 하죠. 경제학자들의 눈으로 보면 학생들은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00점 만점에 72점을 받았을 때보다 137점 만점에 96점을 받았을 때 더 기뻐할 이유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실제 학생들은 137점 만점으로 시험을 볼 때 더 행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선택이 항상 합리적이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선물은 바로 현금이겠지만, 실제로 현금을 선물한다면 상대방에게 섭섭함을 줄 수도 있습니다. 또 사람은 장을 보는 시점에 배가 부르면 딱 필요한 양만 사지만 배가 고프면 음식을 과도하게 많이 사기도 합니다.

이처럼 인간의 선택은 합리적이지만은 않고, 따라서 항상 합리적일 거라는 기대 하에 세운 계획은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는 나아가 조직의 손실을 만들고 심할 경우 조직을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습니다. 인간을 오로지 합리적인 존재로만 본다면 개인의 감정, 버릇, 성격 등은 무시되어버리고 한 사람의 내면을 살펴볼 기회를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합리성, 인간을 설명하는 유일한 기준은 아닙니다. **AF**



● 기준의 기준 '사이버'를 잊고 사는 사람들, 그리고 군인

우연히 사무실 병사들끼리 얘기하는 걸 들었다. '사이버지식정보방', 일명 '사지방'에 대한 얘기였다. 무심코 지나가려는 순간 뭔가 낯선 느낌을 받았다. 난 '사지방'이라는 말을 단 한 번도 내 입으로 말한 적이 없었구나, '사이버 보안'이나 '사이버 공격' 등 안보 분야를 제외하면 일상생활에서 '사이버'라는 단어를 사용할 일이 없었구나 하고 말이다. 궁금증이 생긴 나는 자리에서, 즉시, 핸드폰을 꺼내 검색하기 시작했다.

구글 트렌드 조사 결과 '사이버 공간'은 2005년 대비 90퍼센트, '인터넷 접속'은 2004년 대비 85퍼센트 가량 검색량이 줄었다. 어느 순간부터 '사이버 공간', '인터넷 접속'이라는 말이 사라진 것이다. 2000년대 초 급부상한 개념인 두 표현은 어느 순간부터 '촌스러운' 것이 되어버렸다. 우리가 더 이상 이 두 표현을 쓰지 않는 것은 역설적으로 사이버 공간과 인터넷 접속이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사이버'라는 말이 불필요해질 정도로 당연해진 현재, 이상하게도 군대에는 여전히 '사이버지식정보방'이 있다.

10년 전에만 해도 사이버 공간에는 '문'이 있었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 나올 법한 마법의 문처럼, 컴퓨터 앞에 앉아야만 인터넷 세계로 빨려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각자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사이버 공간으로 향하는 문은 불필요하게 되었다. 경계가 사라진 것이다. 자연스레 '사이버'라는 수식어 자체도 필요 없게 되었고 '물고기가 물에 빠졌다'라는 표현이 쓰이지 않는 것처럼 인터넷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인터넷에 접속'이라는 말은 무의미해졌다.

같은 공간에 있지만 '사지방'에 대해 얘기하던 병사들과 나는 다른 삶을 살고 있었다. 항상 휴대폰을 몸에 지니고 다니며 사용하는 간부들은 '사이버'라는 말을 쓸 일이 거의 없지만, 병사들



에게는 여전히 유효한 어휘다. 휴대폰을 사용할 수 없었던 병사들의 입장에서 보면 '사지방'은 사이버 공간으

로 향하는 유일한 문이다. 내가 궁금증이 생기자마자 핸드폰을 꺼냈던 것과 달리 병사들은 궁금한 것이 생기면 '사지방'으로 향했을 것이다. 장병들은 궁금한 것 하나를 검색해보기 위해 줄을 서야 하고 기다려야 했을 것이다. 마치 우리가 스마트폰 등장 이전에, 숙제를 끝내기 위해 아버지가 컴퓨터를 다 쓰시길 기다렸던 것처럼.

병사들의 삶을 살펴보면 정보검색뿐만 아니라 외부와의 소통도 시대에 뒤쳐져있었다. 국방부에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장병들이 휴대폰 사용으로 가장 하고 싶은 것은 바로 '소통'이었다. 현재 대부분의 의사소통이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인터넷이 자유롭지 않은 군대에서는 소통에 장애가 많을 수밖에 없다. 일상생활에서 자유롭게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이 이 시대의 소통방식임에도, 병사들은 다음 사람의 눈치를 보기면서 가족과 통화를 해야 하며, 친구가 남긴 메시지를 다음 날 밤이 되어야 확인할 수 있다.

다행히 작년부터 병사들의 일과 후 휴대폰 사용이 시범 운영되기 시작했고, 이번 달부터는 대상이 전 부대로 확대된다. 일각에서는 휴대폰 사용으로 우리 군이 '당나라 군대'가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지만, 인터넷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오히려 '당나라 시절'에 더 가깝지 않을까 싶다. 전 세계 36억 명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며 스마트폰이 현재 가장 중요한 삶의 방식이 된 지금, 병 휴대폰 사용은 병사를 나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한 명의 민주시민으로서 존중하고 민주사회로 초대하는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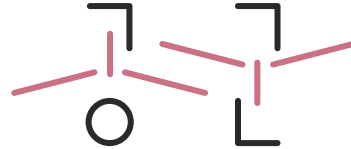
'초대'는 언제나 즐거운 일이다. 친한 친구를 자신의 집으로, 새로운 구성원을 모임에 초대하려면 많은 준비와 정성이 필요하지만 그 준비는 분명 설렘과 기대로 가득하다. 병 휴대폰 사용도 완전한 정착까지 많은 과정과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그것은 분명히 즐거운 일이다. 이 준비과정을 걱정과 우려의 시선으로만 보지 말고 군 간부를 포함한 사회 구성원 모두가 군복무를 하는 청년들을 같은 시대의 구성원으로 초대하는, 참으로 뜻깊은 일에 동참해주었으면 한다. AF

보내는 사람

이름 : _____ 연락처 : _____

도로명 주소 : _____

□□□□□□



받는 사람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계룡대로 663
군사우체국 사서함 501-309호
월간 「공군」 편집실

3 2 8 0 0

백일장 일흔일곱 번째 주제

가족에게 쓰는 편지

월간 「공군」의 구독을 희망하시거나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 주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분야 : 글, 그림, 출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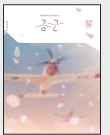
인트라넷(E-mail) : seawhale98@af.mil

인 터 넷(E-mail) : afzine@korea.kr

전화번호 : 042-552-6943

독자 여러분의 재미있는 사연을 기다립니다.

<‘의견’과 ‘사연’을 보내주세요!>



마감일 : 4월 30일까지

가장 좋았던 원고는? 더 알고 싶은 이야기는?

월간 『공군』에 건의하고 싶은 이야기는?

가족에게, 전우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이제 월간 『공군』 엽서를 보내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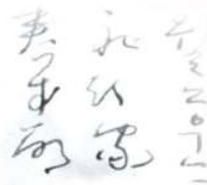
위의 엽서에 쓰고, 자르고, 부치면 끝!

채택된 엽서는 월간 『공군』 지면을 통해 소개해드립니다.

또한 별도 추첨을 통해 기념품도 보내드립니다!

**흑백사진 한 장, 메모 한 줄의 기억속에
공군의 역사가 있습니다!**

공군박물관에서는 2019년 공군 창설 70주년을 맞이하여
당신의 기억, 공군의 역사를 찾고 있습니다.



수집대상

- 사진, 비디오테이프, 필름 등
- 메모, 편지, 수첩, 일기, 일지, 수양록, 문서 등
- 신문, 도서, 포스터, 화보 등
- 문구, 교과서, 시험지, 노트, 성적표, 상장, 음반 등
- 설계도, 공구, TO, 장비 등
- 항공기도입, 부대창설관련 기념품, 그림, 포스터 등
- 공군생활자료, 급여명세서, 임관반지, 스포츠용품 등
- 헬멧, 선글라스, 마후라, 마크, 전투복, 조종복, 정비복 등
- 기타 알리고 싶은 공군의 역사와 추억이 담긴 자료



월로우스비행기양성소 1920

공군사관학교 공군박물관

(우)28187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사서함 335-1호
전화 : (043)290-6071~6075 팩스 : (043)293-6185



편집실에 하고 싶은 말, 월간 「공군」 지면을 통해서 전하고 싶은 사연을 보내주세요.

Blank lines for writing comments or letters.



대한민국공군
REPUBLIC OF KOREA AIR FORCE

2019
04
490



「마음의 소리」

윤여설 (서울시 중랑구)



이번 호 표지는 어떤 도안이며 커브스토리는? 화풍지설과 르포르타주는 무엇일까? 매월 10일경이면 월간 『공군』이 도착한다. 반가운 손님을 맞이하듯이 은근히 기다려지기도 한다. 가볍게 설레는 마음으로 표지를 보며 목차를 훑어보고, 우선 첫 장부터 끝까지 넘겨본다. 나는 월간 『공군』을 받으면 거의 한 장도 빠짐없이 정독한다. 화풍지설은 매우 격조 높은 책머리글이다. 이제 4월말이면 전역(병282기)한지가 꼭 39년이 된다. 어린 시절부터 항공기에 관심이 많았던 나는 공군에 입대해서 항공기제트엔진 특기를 받아 10비 야전정비대대 방부처리반에서 복무했다. 3년 동안 열심히 항공기 부품과 기체를 세척했다. 지금은 블랙이글스가 에어쇼를 전담하지만, 그 당시엔 일 년에 한 번 국군의 날 행사 때만 에어쇼를 했다. 특별히 전담팀이 있는 것이 아니고, F-5A의 무늬를 행사에 맞게 새롭고 울긋불긋하게 도색해서 참가했다. 국군의 날이 가까워 오면 에어쇼에 참가하는 F-5A의 도장을 다시 하기 위해, 내가 기체를 모두 닦았다. 물론 힘들 때도 있었으나 그 항공기가 무사히 행사를 마치는 것을 보면서 보람을 느꼈다.

그 때 『공군』은 발행되었다. 그러나 소량만 출간해서 읽을 기회가 거의 없었다. 또한 지금처럼 골고루 배포되지도 않았다. 도서관에 들렀다가 월간 『공군』이 비치되어 있는 것을 봤다. 잊혀진 전우를 만난듯이 반가웠다. 즉시 구독신청을 했다. 그 뒤로 매월 집에서 편안하게 받아본다. 월간 『공군』을 펼칠 때마다 기종은 다르지만, 내가 3년 동안 닦았던 것처럼 늘씬한 유선형의 항공기들이 있다. 그 시절이 아련히 떠오르고 추억으로 인도한다. 친근한 옛 친구들처럼 반갑다. 월간 『공군』을 넘길 때마다 든든하고 대견스럽다. 또한 우리 월간 『공군』을 더 많은 독자들이 읽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나도 이제 환갑이 넘은 나이이다. 그러나 아직도 천지를 뒤흔드는 광음을 내며 힘차게 발전하는 전투기가 눈에 선하다. 나는 지금도 공군이며, 영원한 비행기병 환자이다. 공군 장병님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편집실 윤여설 독자님, 보내주시는 장문의 편지에 편집실은 큰 힘을 얻었습니다. 공군과 월간 『공군』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 감사합니다. “나는 지금도 공군이며, 영원한 비행기병 환자이다. 공군 장병님들 사랑합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대목에서 편집실은 그만 ‘울컥!’ 하고 말았습니다. 월간 『공군』이 존재하는 것은 현역 장병들은 물론 예비역과 공군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이 계신 덕분입니다. 보내주시는 성원에 힘입어 더 즐거운 소식, 멋진 사진 보실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김성민 (경기도 평택시)

필승! 제20전투비행단에서 근무하는 김성민 상병입니다. 휴가를 나갈 때 전투복보다는 약복을 많이 입고, 근무할 때는 정비복을 입는데 2월호를 읽으면서 평소에 입는 정비복이나 약복에 대해 더 자세히 알 수 있어 좋았습니다. 월간 『공군』에서 공군의 군가에 대해 다뤄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본군사훈련단부터 자대까지 기쁠 때나 힘들 때 옆에 전우와 같이 빨간 마후라, 공군가, 하늘의 사나이 등 많은 군가를 부르는데, 우리 공군의 군가에 대해 좀 더 알고 싶습니다.

편집실 김성민 독자님, 훈련단에서 배운 군가는 웬지 나도 모르게 흥얼거리게 되는 마성의 매력이 있지요. 힘들 때 함께 했던 노래이기에 더 마음속에 깊이 남는듯 합니다. 말씀하신대로 공군에는 다양한 군가가 있고, 하나같이 매력적인 멋진 곡들입니다. 『공군』은 지면이라는 특성상 군가를 다루는 데에는 제한점이 있겠지만, 소셜미디어담당과 협조하여 많은 분들이 공군 군가의 매력을 알 수 있도록 힘써보겠습니다!



김은빈 (서울시 구로구)

세상에서 제일 멋진 공군 777기 남자친구를 기다리는 공신입니다. 남자친구 덕분에 공군 소식 또한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남자친구의 긴 복무기간을 여태껏 기다릴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월간 『공군』이 매월 새로운 모습과 다양한 이야기로 찾아와 준 덕분에 조금이나마 시간이 더 빠르게 흐른 것 같습니다. 전역 후에도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구독하려 합니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높은 힘! 공군 고맙습니다. 파이팅! 호준아, 건강하게 전역하자. 사랑해.

편집실 김은빈 독자님, 세상 달달한 업서에 편집실 일동은 부러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월간 『공군』 편집실로 구독 요청을 주시는 분들 중에는 '가족(애인)이 공군에 복무하고 있다.'고 말씀해주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곳은 궁금하고 알고 싶기 때문이겠지요. 『공군』은 그런 분들을 위해 최대한 다양한 소식을 쉽게 전달하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을 『공군』과 함께 해주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두 분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강민재 (경기도 안산시)

공군을 전역한지 2년이 다 되어갑니다. 근무할 땐 상황실에서, 전역하고는 방에 앉아 월간 『공군』을 읽으며 군 생활과 공군 소식을 떠올려보는 합니다. 2월호는 평소에 관심 있었던 공군만의 피복 체계와 역사, 그리고 더 좋은 피복으로 개선하기 위해 힘써주시는 분들에 관한 내용이 있어 즐겁게 읽었습니다. '웃이 날개'라는 말도 있고 어떤 옷을 입는지에 따라 행동거지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저마다 가슴에 대한민국공군 표 시장을 달고 영공 방위를 위해 힘써주고 계신 공군장병 여러분과 날개 같은 곳, 피복 개선에 노력 해주시는 분들 모두를 응원합니다. 공군 파이팅!

편집실 강민재 독자님, '웃이 날개'라는 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웃이 멋져야겠죠. 그런 점에서 공군의 의복은 '날개'라는 말이 딱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계다가 공군이니까요!) 그래서 공군인들은 자신이 입는 제복에 자부심을 갖게 되지요. 독자님께서 평소에 관심 갖고 계시던 주제를 설명해드릴 수 있어서 대단히 기쁩니다. 또 『공군』을 통해서 알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언제든지 업서를 통해 의견을 보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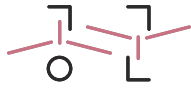


이재승 (서울시 구로구)

공군 741기입니다. 전역 후에도 많은 사랑을 받고, 애정을 쏟았던 공군의 소식을 듣고 싶어 꾸준히 『공군』을 구독하고 있습니다. 2월호부터 시작되는 <내 옆의 공군인> 코너를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공군에는 각자 뛰어난 능력으로 협동심을 발휘하는 장병들이 많은데요, 범죄예방 교육자료를 제작하는 김현준 상병을 이어 각자의 특기를 살려 복무하는 다른 장병들의 이야기도 기다려집니다. 이렇게 각 개인이 공군에서 특기를 살릴 수 있는 것은 공군이 열려있는 조직이기에 가능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재미있고 유익한 콘텐츠와 멋진 공군의 활약상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집실 이재승 독자님, 올해부터 새롭게 시작한 <내 옆의 공군인>을 반겨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 옆의 공군인>은 앞으로 다양한 계급의 현역 장병부터 예비역, 군무원까지 다양한 '공군인'들을 만나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코너에 숨겨진(?) 놀라운 사실! 바로 공군 SNS에 영상 콘텐츠로도 업로드가 된다는 점입니다. <내 옆의 공군인>과 함께, <LIVE PAGE>라는 제목으로 업로드 되는 영상 콘텐츠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말씀하신대로 앞으로도 더 재미있고 유익한 콘텐츠로 공군의 멋진 활약상 전해드리겠습니다!





4 9 0